



## 통일을 기리는 우리의 뜻

형제들아

혹시나 기다리다 지쳐

그나마 눈물마저

말라 버리거나 앓았는가

마비된 채

포기해 버리고

체념해 버리고

그날 그날 각박한 현실에 쫓겨

살아 가기에 바빠

통일을 잊어버리거나 앓았는가

그럴리 없지

그럴리 없지

일각이라도 잊어선 안 될

민족의 큰 소원이기에

일초라도 꺼져선 안 될

역사의 큰 햇불이기에

여기 분명

그 소원 불타고 있네

.....

.....

세상엔 우리통일

진실로 원하는 자 없고

우리통일 가져다 줄

아무도 없네

죄 없는 자손들에게

이 분단된 국토를

유산으로 넘겨줄 수는 없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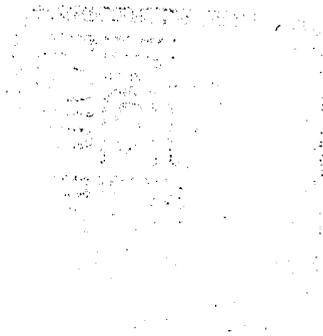
우리 손으로

우리통일 이루어

세계로 뻗어 나갈

민족의 앞날을 열자

〈이은상씨의 시 ‘통일을 향해’ 중에서〉



改正版

3931  
333.53

# 무엇이 공산주의인가?



} 공산주의  
" 비판

국토통일원

## 개정판을 내면서

당원은 제 5 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공산주의 비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지난 '82년도에 '알기쉬운 공산주의 비판' (2 판부터 '무엇이 공산주의인가'로 제명 바꿈)을 펴낸 바 있다.

이 책자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흥미있게 읽어가는 가운데 공산주의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인데, 출간된 후 많은 독자와 국민정신교육의 일선요원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일부 수정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초판본의 내용중 너무 어려운 한자용어나 복잡한 문장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든가, 독자에게 공산주의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이에 대한 비판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론보다도 공산사회 현실 비판부분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다는 지적 등이다.

이에 당원에서는 이러한 각계의 의견들을 될수 있는대로 폭넓게 수집 반영함과 아울러 관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좀더 알기 쉽고 알찬 내용이 담긴 개정판을 다시 발간키로 하였다.

이 개정판에서는

첫째, 장·절의 순서를 바꾸어 논리적 흐름에 따라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하였고,

둘째, 제 2 장의 핵심이론 부분을 일부 보강함과 아울러 내용이 중복된 공산사회의 실상 소개부분을 재조정하여 줄였으며,

세째, 전문용어나 어려운 문장들은 될수 있는대로 쉬운 용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다듬어 중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력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상을 올바르게 알고자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널리 읽혀짐으로써 북한 공산집단과의 사상적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정신교육 강화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84년 12월

국토통일원 장관 손 재 식

## 책 머리에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도대체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큰 문제가 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만 일으켜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고, 그들 주민을 굶주림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어떤 사람들은 공산세계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설마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겠느냐고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본래 이론은 좋은데 공산주의자들이 실천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한다.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렇게도 나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째서 주민들이 꺾기하여 공산정권을 뒤집어 엎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또 젊은 세대들 중에는 “정부는 공산주의자들과 남북대화도 하면서 왜 우리들에게는 대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는 안보태세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공산주의를 잘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공산주의는 왜 나쁘다는 것인가? 어째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는가? 공산주의가 사실 그대로 위해(危害)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모순을 다루면서 이와 같은 의문에 해답을 주고자 시도한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론 위주의 비판서이거나 설명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산주의의 본질과 실상을 흥미있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

도록 명쾌하게 엮은 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학자들만이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40년에 가까운 기간 북한공산주의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 모두가 공산주의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일은 자유·민주역량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 5공화국 출범 이래 정부는 새로운 차원의 통일안보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특히 올바른 공산주의 비판교육을 강화하라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따라, 일차적으로 당원에서는 '81년에 「국민정신교육전문요원용」 및 「근로청소년용」 그리고 「일반성인용」 공산주의 비판 교재를 개발하였고, 이번에 중등학력 수준이면 누구나 쉽고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알기쉬운 책자를 펴내게 된 것이다. 이 책을 펴내는데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특별실험교육과 사계 전문가들의 자문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공산주의를 “무조건 나쁜 것이다”고 하기 보다는 공산주의 선전이론과 실제 및 행동으로서의 전략·전술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읽는 이들이 스스로 그 실체를 꿰뚫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공산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올바르게 비판하는 예리한 눈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82년 9월

# 차 례

• 개정판을 내면서.....	2
• 책머리에.....	4
1. 우리는 왜 공산주의를 알아야 하는가?.....	9
공산주의를 알아야 할 몇가지 이유 / 11	
공산주의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 18	
공산주의를 왜 반대하는가? / 26	
2. 공산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31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 33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 41	
공산주의 사회가 어떠한 사회라는 것인가? / 46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건설한다는 것인가? / 51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 55	
3. 공산주의는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61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공산정권을 세우게 되었는가? / 63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활개를 치는가? / 76	
공산주의자들이 속이는 수법은 무엇인가? / 80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85	

4. 공산주의는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93
- 하나의 당 ‘공산당’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 / 95
  - 한사람 손아귀에 모든 것이 쥐어져 있고, 우상처럼 떠받들게 하는 사회/106
  -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획하는 사회 /118
  - 집단화되고 격리된 전체주의 사회 /138
5. 공산사회에서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145
- ‘새로운 계급’만이 땡땡거리며 산다 /147
  - 먹고 살기가 우선 급하다 /150
  - 정해진 직장에 서 일하고, 배정해 준 집에서만 살아야 한다 /155
  - 감시와 통제 속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 / 159
  - 생각대로 말하고 발표할 수도 없다 /163
  - 갓가지 노력 경쟁운동 속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 /167
  - 가정은 하나의 합숙소가 되었다 /174
  - 종교조차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 / 177
  - 배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배울 수도 없다 / 180
  - 자신의 뿌리와 나라의 역사도 모르며 산다 /183
6.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87
-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189
  - 공산주의를 정확히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자 /192
  - 우리 모두 앞장서 통일을 이룩하자 / 194



# I

---

## 우리는 왜 공산주의를 알아야 하는가?

---

공산주의를 알아야 할 몇가지 이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해

인류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공산주의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어떻게' 알아야 할까?

공산주의를 왜 반대 하는가?



# I

## 우리는 왜 공산주의를 알아야 하는가?

### 공산주의를 알아야 할 몇가지 이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위태롭게 하는 적이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찾아 내어 항상 감시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싫거나 짜증스럽지만 꼭 알아야 하고 익혀 두어야 할 것은 우선 알고 배워두어야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때로는 자기가 싫어하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싫든 좋든 간에 알아 두어야 하는 경우도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선의(善意)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거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각종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는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이긴 해도 자기의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어느 개인이 어느 단체의 한 사람으로 운동경기를 관전할 때에는 응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한 덩어리가 되어 응원하고 다같이 박수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나, 낯선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여행할 때, 그 지방 그 나라의 예절과 각종 법규를 알고 지켜야 하는 것과 같다.

세째는 자기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대상이지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옛날 손자병법(孫子兵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즉「지피지기 백전불태」(知皮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참으로 핵심을 찌른 말이다.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들짐승과 마주쳤다고 하자. 그 짐승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만일 그 짐승이 나무를 잘 타는 표범 종류일 경우, 나무위로 도망가다가는 오히려 결정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범이란 짐승이 불빛을 싫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금방 성냥이나 라이터를 켜서 불을 지핀 후, 적절한 안전책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앞에서 말한 세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잘 알고 이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공산주의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는데 기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우리 민족사(民族史)의 뿌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공산주

의라는 외래사상을 한반도 전체에 옮겨 심으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토와 민족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난 채 온갖 비극과 고통을 겪어 왔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6·25 남침으로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잔인하고 악독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무려 2백50여만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내었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 많은 민족의 귀중

#### 6·25 전쟁의 피해상황

●인명피해	
국군(사망·실종·부상)	257,000명
유엔군(사망·실종·부상)	150,000명
민간인 사망	245,000명
양민 학살	130,000명
민간인 행방불명	300,000명
피난민	7,200,000명
전쟁 고아	100,000명
전쟁 미망인	300,000명
●재산피해	
학교 및 주요건물	22,437개소
사찰 및 교회	5,236개소
대도시 파괴	56개소
읍·면 파괴	5,400개소
피해 재산액	4,410,500,000,000원

한 재산을 잣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우표 한장만 붙이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밀림 속까지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세상인데, 남북한 간에 흩어져 살아 가는 부모, 형제, 자매들은 휴전선이라는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부편지 한장도 주고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도대체 북녘땅에 도사리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받들어 믿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길래 우리 민족에게 이토록 커다란 분단의 아픔과 손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우리 민족은 하나로 다시 뭉쳐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인가? 전쟁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모두가 항상 마음을 조이며 살 수 밖에 없는 오늘과 같은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와같은 민족적인 불행과 인간적인 아픔들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고, 같은 형제끼리 총부리를 맞대며, 또 다시 이 땅을 잣더미로 만들지도 모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민족이 다같이 번영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길은 다름 아닌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의 대상이 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노리는 가를 미리 알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을 길러두어야만 한다.

## 인류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둘째,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존재로서, 전세계 자유민(自由民)들이 이를 싫어하고 배격하는 비인간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생긴 이래, 공산주의자들의 폭력과 침략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인명피해는 무려 1억4천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에 보탬이 된다고 생

각만 하면 협박, 파괴, 납치, 살인, 폭동 뿐만 아니라 총칼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붉게 물들어진 공산화 지역을 살펴 보면, 한결같이 폭력과 전쟁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곳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늘에도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 여러 곳에서 무력수단을 동원하여 공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그들의 기본목표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인명피해

지 역	학 살 자 수
중 공	6 천만명
티 베 트	20만명
말 레 지 아	
버 마	15만명
필 립 핀	
한 반 도	2 백50만명
베 트 남	2 백45만명
쿠 바	3 만 3 천명
소 련 일	6 천 6 백만
독 일	2 백10만명
폴 란 드	27만명
유 고	45만명
그 리 스	7 만 2 천명
루 마 니 아	15만명
항 가 리	10만명

(자료출처 : 주한 중국대사관, 자유중국주보 80.10.6)

※그밖에 캄보디아에서 2백만명, 아프카니스탄에서 50만명이 학살됨.

오늘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민들은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짓밟아 버리려는 이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가로막고, 그들의 세계적화(世界赤化) 계락을 깨트려 나가기 위해서도 공산주의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세째,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공산주의의 정체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8.15해방 이래, 북녘땅을 지배해 온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자기들 멋대로 조작하여 정치선전물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 온 미풍양속을 말끔히 없애 버리고, 우리의 고유한 글과 말까지도 자기들 나름대로 변질시키고 뒤틀리게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민족적 긍지와 자랑스런 민족문화의 전통을 끊어 놓으려는 민족사적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더우기 우리 자유대환을 붉게 물들여 이른바 ‘사회주의의

\*사회주의의 동방초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남한에서의 ‘남조선혁명’ 및 국제적인 ‘세계혁명’을 서로 관련시켜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을 세계혁명의 일부분으로 생각함. 한반도는 세계혁명을 위한 동쪽의 발판 기지 및 최전방의 초소가 된다는 뜻임.

동방초소\*\*를 만들고 말겠다고 오늘도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 있다.

이와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의 생존과 안전을 항상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주민 모두가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자매들이며,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의식과 수 천년을 이어 온 민족 고유의 찬란한 문화전통이 날이 갈수록 파괴되고 희미해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한민족사(韓民族史)가 언제 끊어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 가고 있는 우리 세대 모두가 이같은 공산주의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위협과 역사적 위기를 능히 이겨 나가려면 막연히 “공산주의란 무서운 것이다”라는 두려움이나 “공산주의는 될 수 있는대로 멀리할 것이지 가까이 해서는 손해다”라는 등의 소극적인 생각에 사로 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똑똑히 보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참뜻이 만에 하나라도 공산주의라는 대상을 알지 못함으로써,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는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부추기는 선전 선동술책을 바로 알며, 또 그들의 내부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이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알고나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길만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안고 있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사명과 책임을 비로소 다 할 수 있고,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앞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알아야 하는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를 알려고 할 때에도 미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며, 또 ‘어떻게’ 알아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아는 데는 설득과 선전무기로서의 이론, 현실로서의 공산사회의 실상, 그리고 정권을 뒤엎고 빼앗는 수법인 전략전술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만 그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로, 공산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핏 보기에 그럴듯한 논리(論理)와 주의(主義), 주장(主張)을 내세워 이에 사상적으로 빠져 들게하고 정신을 혹하게 만드는 선전무기를 지니고 있다. 즉, 19

세기에 독일의 칼·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생각해 내고 정리한 바 있는 철학·정치·경제·역사 등에 걸친 광범위한 이론체계와 선전 선동의 명분들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인간의 역사는 원수와 같은 두 개의 계급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서로 투쟁하는 역사이며, 이 투쟁을 통하여 발전한다』, 『노동이 사람의 욕망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하고, 공산사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생활은 생산관계와 물질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며, 정신적인 활동도 결국 이 물질관계의 반영일 뿐이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빼뚫어진 사상들이 바로 그것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론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며, 정권을 탐내는 몇몇 사람들이 대중을 홀리고 자기들이 꾀하는 목적에 동원해 내기 위해 교묘히 짜낸 생각들에 불과한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밝혀내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 이론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들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분야의 실제적 생활상이 어떠한가, 즉 우리가 흔히 실상(實相)이라고 일컫는 실태면을

\*칼·마르크스(Karl Marx) : 1818년 독일에서 유태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남.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면서 헤겔좌파로 활동하다가, 파리에 가서 당시의 사회주의자들과 접촉하여 선동적인 글을 발표함. 1849년 이후 런던에 거주하며 엥겔스의 도움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하여 공산주의 시조(始祖)라고 불림. 「자본론」, 「독일이테오토키」등을 집필하였으며, 1883년 병으로 사망함.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이론상의 결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와 아무 상관없이 동떨어진 이론이나 주장만을 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이론이나 주장은 그것을 실제와 연결시켜서 파악할 때만이 비로소 결과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그 진정한 의미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의 이론을 ‘바르게’ 아는 가장 정확하고도 빠른 길은 공산주의사회의 실태를 확인하는 길이다.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마치 희랍신화에서 나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머리처럼 공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분야별 실태와 주민생활이 어떠한가를 낱낱이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세계와 너무나도 다른 공산사회의 실상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선전대로라면 지금쯤 공산국가들은 모두 ‘노동자의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자의 지옥’으로 변해 있고, 『근로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가 바로 공산사회다』라고 외쳐 왔으면서도 실제로는 공산당 간부들이 새로운 ‘귀족계급’으로 등장하여 공포정치와 숙청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탄압하고 있는 공산사회의

\*착취 : 착취라는 말은 원래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뜻임.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가 생산에서 얻은 이윤을 빼앗아 부자가 된다고 하여 이를 착취라고 비난하고 있음.

엄연한 현실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세째로, 공산주의의 본질과 실체를 똑바로 파악하려면, 선전이론과 실패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제3장(공산주의는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노리는 바를 달성키 위해 어떠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가와 갖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술책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을 속이고 꾀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래 공산주의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만물이 생성소멸(生成消滅)하는 근본이치는 무엇인가? 하느님이나 신의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등을 우리 인간들에게 밝혀주고 가르쳐주는 종교적 교리(敎理)나 철학적 사상의 하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등이 현실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허점을 캐내고 이를 넘어뜨리려는 하나의 행동지침, 다시 말해 공산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의 지침으로 궁리해 낸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일차적인 목표는 정권을 빼앗아 거머쥐는 것이며, 이를 밑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세포처럼 조금씩 공산혁명을 번지게 하여 마침내는 전세계를 그들의 붉은 손아귀에 넣으려는 데에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의 처음이며 끝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행동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나라이든 공산주의 세력이 스며들면 이들은 일단 그나라에 세워져 있는 정부를 뒤엎은 다음 저들의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이른바 ‘혁명투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여 공산정권이 들어서면, 이를 근거로 하여 점차 이웃 나라들에 전쟁 위협과 ‘혁명수출’\*을 통한 조직적인 공산화 책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다.

소련이 2차대전 후 북한과 동독 등에 그들이 내세운 공산 꼭두각시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거나, 동부유럽 여러나라들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 그땅에 있던 민족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소위 공산 위성정권(衛星政權)을 세운 사례들이 모두 다 이러한 생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 ‘어떻게’ 알아야 할까?

앞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알고자 할 때는 이론과 현실, 그리고 행동(전략·전술)의 세가지 측면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각각 따로 떼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세가지를 동시에 서로 연관을 지어서 알아야 한다.

\*혁명수출 : 공산주의자들이 세계의 공산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게릴라와 무기를 보내거나, 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초청해 훈련시켜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공작하는 것을 말함.

왜냐하면 하나의 선전논리(이론)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회 속의 실제에 반영되게 마련이고, 또 사람들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현실을 정당화 시키자면 이를 주민에 납득시킬 수 있는 선전논리가 동원되고, 이것이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가 서로 새끼 꼬이듯 엮히고 설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만일 이를 따로 떼어서 보게 된다면, 그들의 주민생활 부문에서는 “공산세계의 사람들은 참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구나”하고 단순히 동정적인 감상에 젖을 우려가 있고, 그들의 혁명전략과 전술의 악랄함을 접하고서는 “참으로 무섭고 무자비한 놈들이구나”하고 공포감에 젖거나 이를 멀리 기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또 그들의 그럴싸한 선전이론과 구호들을 대하고는 “그것 참 그럴싸한 데”하고 홀리게 될 염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공산주의를 잘 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막상 따지고 들어가면 전혀 모르거나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주의나 사상이든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므로, 비록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무언가 그럴듯한 데가 있으니까 130여년 간을 지탱해 왔지 않았겠느냐”고 의문을 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내 것, 네 것 없이 고루 나누어 먹고 다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어림짐작으로 멋대로 해석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산주의를 알고자 할 때 어느 한 부분만을 파악하여서는 공산주의의 정체와 그 해독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코끼리의 몸체 중 어느 한쪽만을 만져 보고 제멋대로 짐치는 장님이 되지 말고 코끼리 전체의 참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경험을 통해 얻은 공산주의에 관한 지식과 정보들을 종합하여, 공산주의의 선전이론, 실태, 행동 등 세가지를 동시에 연결시켜서 파악하는 슬기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한편, 공산주의는 그 속셈이야 어디에 있든 간에 겉으로는 마르크스의 철학이다, 정치학이다, 경제학이다 하여 그럴듯한 이론체계로 포장되어 있고 억지 춘향이 식으로 그 과학성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밖에서 어설피 들여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무엇인가 그럴듯한 게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복잡해서 뭐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핵심을 알아야 한다. 즉 깊숙이 숨겨 놓은 알맹이만 찾으려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문제를 풀 때 아무리 까다롭고 복잡한 응용문제라도 이에 해당하는 공식만을 잘 알고 있으면,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또 산토끼 사냥을 할 때도 토끼의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토끼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요령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도 이리저리 우리의 눈 앞을 흘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끌려 그 뒤만을 쫓아 다닐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되는 몇가지 요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공산주의의 본질은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 명료하다. 우리가 마술사의 갖가지 마술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고 느끼지만 일단 그 속임수 몇가지만 알아채면 싱거운 것이 되는 경우와 같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복잡한 이론과 선전명분, 다양한 전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게 하며,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아 판단을 흐리게 하더라도 그것이 노리는 바는 항상 뚜렷하게 세워져 있다.

즉 공산주의는 오직 하나의 기본 목표, 『전 세계를 공산화 한다』는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이 연결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실마리로 하여 풀어가면 얼키고 설킨 사연과 속셈을 의외로 쉽게 캐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겉으로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퀴즈문제 일수록 일단 그 열쇠를 알고 보면 오히려 더 쉽고 빨리 답을 얻게 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의 기본이론이나 여러 가지 속임수들을 염두에 두고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그 밖의 다른 매체를 통해 공산사회의 현실을 보고 듣고 해석한다면, 공산주의 실체를 훨씬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의 해독과 죄악상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전후세대(戰後世代)가 전 인구의 70%에 가깝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와같이 공산주의를 바르게 알고 비판하는 길을 배우고 몸에 익혀 나가는 길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 공산주의를 왜 반대하는가?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보는데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다. 공산주의란 그 자체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생겨난 후 지금까지 저질러 온 죄악과 인류에 끼친 해독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공산주의는 인간의 양심과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 선(善)과 악(惡)을 구별하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다는 데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도덕과 양심이 세워져야 한다.

제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양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어느 집단이나 사회, 어

느 국가에서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만 할 일들이 있는 법이다. 이른바 선과 악을 가름하는 잣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남이야 어떻든 자기 배만 채우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양심과 도덕의 가르침을 헌 신작처럼 버리게 되면, 이미 그런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동포들과 함께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화합(和合)과 사랑의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 바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도덕의 표현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도덕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른바 ‘공산주의적 도덕·윤리’라는 것은 혁명의식을 드높혀 노동자계급에 반대되는 모든 계급을 때려 부수며, 공산사회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계급적 적(敵)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자세를 굳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사랑 대신에 미움을, 민족 대신에 계급을, 평화 대신에 투쟁을, 화합 대신에 분열을, 정신 대신에 물질을 앞세우는 비인간적이며 비도덕적인 존재들

\*공산주의적 도덕·윤리: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원칙과 규범을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도덕이나 윤리의 행동원칙과 규범으로서 ①자본주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 ②동지간의 원칙적인 단결 ③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발현 ④노동에서의 헌신성 ⑤집단주의의 발현 ⑥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발현 등을 내세우고 있음.

이다.

공산주의는 출발부터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인간 그 자체를 혁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보다도 공산주의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인간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커다란 영광과 명예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생화학(生化學)무기를 개발키 위해 수 많은 유대인들을 산 채로 실험대상으로 삼았었던 것처럼, 그들의 혁명 목적에 인간을 씹어먹은 다음에는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고 만다.

우리는 사물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함에 있어 이것이 인간의 행복과 정의의 구현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이냐에 두고 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공산당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또는 공산혁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방해가 되느냐 하는 데 두고 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위한 행동이면 무엇이든지 진리요, 정의가 된다. 거짓말도, 침략도, 살인, 파괴, 약탈, 음모도 공산주의를 위한다면 모두 바른 것이 되는 것이다. 철 모르는 아이들을 시켜 자기 부모들을 고발케 해 놓고,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적 도덕’에 철저한 모범적 행동이라 크게 칭찬하는 것이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주민을 공산혁명을 위한 ‘전위대’(前衛隊)와 ‘후비대’(後備隊)로서 목숨을 바치는 전투적 인간으로 개조(改造)하려 노력한다. 공산주의 사회를 ‘붉은 인간의 사육장’이라

빚대어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인도적이며 비인간적인 공산주의의 본질을 잘 파헤친 말이라 할수 있다.

공산사회에서는 개인의 취미, 소질, 행복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직 주는 대로 먹고, 입고, 시키는대로 일하고 잠자면 가장 모범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이 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을 적개심에 가득찬 전투적인 인간으로 만들려는 데 있다. 그들은 『낡은 것은 멸망하고,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면서, 공산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투쟁의 불길을 높이 들어 싸울 때, 『멀지 않은 장래에 공산주의가 승리하여 지상천국이 이룩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 공산당은 멀지않아 이 땅에 붉은 통일이 이룩된다고 주민들에게 믿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같은 민족인 남한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부추긴다. 그들의 ‘인민학교’(우리의 국민학교)의 교과서를 보면 『남조선에는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내 눈을 사시오, 콩팥 사시오, 피를 사시오! 라고 쓴 띠를 메고 돌아다닌다』고 하는가 하면, 산수책에서까지도 『남조선에는 하루에 피를 팔러 오는 사람이 5명, 눈알을 팔러 오는 사람이 5명입니다. 도합 몇 명입니까?』등 살벌하고 몹서리 치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친다.

공산주의가 이같이 인간의 본성을 배반하고 도덕과 윤리를 깔아뭉기면서 찾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계급이란 것이 과연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살해해도 될 만큼 소중한 것일까? 이 모두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 속에 깊은 슬픔과 함께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며,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마음 속에서 절대 반대케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 2

---

### 공산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공산주의가 생겨난 당시의 상황  
빛나간 마르크스의 예언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물질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노동만이 상품의 가치를 생산한다

공산주의 사회가 어떠한 사회라는 것인가?

내 것 네 것 없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국가조차 없어지고 마는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건설한다는 것인가?

피의 투쟁과 폭력혁명으로  
폭력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과도적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사회  
원래의 사회주의가 뜻하는 것



## 2

### 공산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겨 났는가?

공산주의가 하나의 체계적인 정치 사상(思想)·이념(理念)으로 완성되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 독일의 칼·마르크스에 의해서 이다. 19세기 중엽은 지난 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의 결과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널리 미치게 되어 종래의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던 때이다.

#### 공산주의가 생겨 난 당시의 상황

당시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 일어난 세력들이 종래의 봉건 귀족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자유경쟁원리에 따른 국

\*산업혁명: 1770년경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생산 기술면에서의 큰 발전과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제도의 변혁을 말함. 산업혁명의 결과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근대 자본주의의 확립이 가능케 됨.

단의 자유방임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점점 벌려 놓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그리하여 일부 공장 근로자들의 생활은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파업, 폭동 등 사회적 혼란이 유행병처럼 번져 나갔다. 사회적 혼란기에는 항상 이를 고쳐 보겠다는 각종 영터리 종교단체나 새로운 사회개혁\*사상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시기에도 당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 산업사회의 문제점, 즉 가난과 실업, 사회적·경제적 불평 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갖가지 사상, 이념들이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이른바 ‘이상적 사회주의’\* ‘인도주의’(人道主義),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상디칼리즘’\*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이러한 이념이나 사상들은 대개 초기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점을 비판하고 각기 제 나름대로의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자는 데 뜻을 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19세기 중엽 이후의 사회비판적 분위기 속에서 자본가와 근로자간의 빈부격차에서 생기는 마찰을 이용하

\*자유방임주의 : 18세기의 자연법 사상을 토대로 한 경제사상의 하나로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가 간섭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임. 즉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대로 놓아 두면, 사회는 자연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최대의 진보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임.

\*사회개혁 : 국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구조적 문제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말함.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등이 있음.

\*이상적 사회주의 : 개인주의의 병폐를 인간의 사랑과 협동에 의해 부(富)를 재분배함으로써 극복할 것을 주장한 학설임. 이에 속하는 학자들로는 19세기 초엽의 상시몽, 푸리에, 오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대개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음이 특징임.

\*상디칼리즘 : 프랑스에서 싹이 튼 산업노동조합주의라고 하는 실천적 사회주의 운동임. 노동조합 자체를 개조된 사회의 기초로 보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社會的共有)를 주장하는 학설임.

여 사회를 한꺼번에 뒤엎어 버리자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독일의 젊은 과격파 철학자들 중에는 그들의 국가가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힘이 약한데다 아직도 남아 있는 봉건귀족들에 의해 농민과 노동자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 분격하여 당시의 전제정권(專制政權)을 폭력혁명에 의해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격파 학자들 중에는 특히 근로자와 지식인들의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부채질함으로써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극렬한 주장을 내세운 일파가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이며, 그가 궁리해서 내세운 반(反)자본주의의 선동논리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온 공산주의 이론의 뼈대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그 시대에 요청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고안되고, 주장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대가 바뀌면 곧잘 터무니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공산주의를 맨처음 하나의 사회혁명사상으로 생각해 낸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의 라인 강변에 있는 한 시골에서 유대인계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분격한 나머지, 이러한 사회 질서를 어떻게 해서든 일시에 타파하여 유대인의 지위를 개선해 보려는 데 특별한 관심을 두었던 것이었다.



중공 주석 화국붕이 마르크스 동상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그러나 그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마르크스의 서적을 읽지 않으며 마르크스주의를 논하지 않는다.

몇 사람들이 권력을 거머쥐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가 그나마 일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아직도 공산주의 세력은 일부 후진사회의 웅달진 곳을 누비며 선전선동을 일삼고는 있으나, 선진사회에서는 공산

따라서 마르크스는 당초부터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이나 인간적 고통을 덜어주자는 데에 남 다른 열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현사회를 뒤집어엎고, 공산정권을 세우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사회혁명을 일으킬 선동 명분을 끌어내려 노력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던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추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몇

당 스스로가 자기들이 믿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은 이미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생각이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지난 84년 12월 7일자 사설에서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은 오늘의 중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100여년 전의 낡은 사상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 빗나간 마르크스의 예언

그러면, 한 때 혼탁한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복음(福音)인 양 유행하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오늘의 현대사회에 와서 그 설 자리를 잃어가게끔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다른 생산수단이나 재산을 갖지 못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 밖에 없는 사람(이를 ‘무산대중’이라고도 함)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점점 더 가난해지게 마련이며,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불어 날 뿐이라고 한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 그들은 부유한 자본가와 싸우게 되고, 결국 노동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는 이러한

계급투쟁\*의 결과로 몰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백년 동안의 여러나라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었던 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면 왜 마르크스의 이같은 예언은 빗나가게 되었는가?

첫째,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가들은 이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생산비를 낮추어야 하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줄이는 한편, 될수록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수를 줄여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 지고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쇄기가 발명되면 펜이나 붓만으로 일하는 필공(筆工) 대신에 더 많은 인쇄공이 필요하게 되며, 철도가 발달될수록 인력거꾼 보다 몇 배가 많은 철도 근로자가 필요하게 되고, 기계식 방직기의 도입으로 오히려 더 많은 방직공이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기계의 발명은 실업자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

\*계급투쟁 : 사회는 적대하는 둘 이상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각 집단은 서로 타도하려고 싸움하게끔 되어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말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간의 투쟁이 오히려 인류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억지를 쓰고 있음.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나뉘어져 필연적으로 싸움하게 되어 있다고 믿게 하여 유흥폭동을 유도하자는 선동논리임.

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록 상대적으로 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는 중산층(中産層)은 늘어났지만 가난한 사람의 수는 날로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도 1870년에서 1940년까지 세계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중산층은 약 10배이상 늘어났으나 극빈층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이 몇 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지고, 주민의 절대 다수는 점점 가난해 진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윤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하다 보면 자본을 적게 가진 사람은 점점 망하게 되고 대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흡수해서 눈사람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이 많다고 해서 이에 비례하여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보장은 없다. 자본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잘못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기업체는 망하게 된다. 또 거꾸로 비록 자본이 적더라도 열심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켜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것을 다시 투자하면 그 기업체는 점점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각종 기업은 어느 한사람이 소유하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거의 전부가 주식회사(株式會社)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수천 수만의 주주(株主)가 모두 한 회사의 자본주이며,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들도 자기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활은 자기만 성실히 노력하면 점차 향상되어 왔었던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그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켜 나가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자기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길이 바로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대가에 알맞는 적정임금을 지불하고, 갖가지 복지와 후생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더우기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기업활동을 기업가에게만 맡기지 않고 이에 직접 끼어들어 사기업도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해 지는 것은 각자의 게으름이나 노력 부족의 탓일 뿐, 근면 성실하고 알뜰히 살림을 꾸려 나가면 누구라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몇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마르크스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한낱 점장이의 예언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죽어서까지도 조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망명지인 영국의 쓸쓸한 묘역 한구석에 누워 있는 마르크스도 오늘의 번영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를 보고 있노라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이었던가에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우리가 공산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우선 그들이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봉해 온 공산주의적 세계관(世界觀)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세계관은 모든 공산주의 이론과 실천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공산주의의 거의 모든 것을 똑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 세계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기초가 되는 ‘변증법적 유물론’(辯證法的 唯物論)과 ‘노동가치설’(勞動價值說)이란 색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을 들여다 보고 있다.

### 물질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물질(物質)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정신(精神)은 물질에서 생겨난 부산물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다시말해, 어떤 존재나 물질 등 인간의 외부세계를 이루는 것이 제1차적이고,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 등 인간의 내부세계를 이루는 것들은 제2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은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고 보는 유물론(唯物論)과 정신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이라고 보는 관념론(觀念論)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는, 유물론과 관념론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세계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동무(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모두가 원수”라고 보는 절대적 세계관을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헛된 관념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파멸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인류역사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으로 일관해 왔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도 이같은 계급투쟁의 결과로 절대 다수인 노동자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계급을 쳐 물리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로 반드시 바뀌게 되며, 그렇게 되는 날이면 인간사회는 계급간에 투쟁이 없는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관이 가지는 결함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물질이 역사발전의 중심이란 헛된 생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물질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들여다 보면서 인간을 하나의 의식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다만 먹고, 자고, 노동하는 생물적 존재로만 단정해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처럼 ‘혁명의식’이니 ‘혁명정신’이니 하며, 사람의 정신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집단도 없다.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사상이 불순하다느니, 충성심이 없다느니 하며 몰아친다. 유물론이란 색안경을 남에게는 쓰도록 강요하는 자들이 스스로는 정신문제를 강조하여 그들이 배격하는 관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고도로 발달하면 그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순관계(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관계와 같은)때문에 예외없이 망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벌써 망하여 공산 국가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자본주의가 이제 겨우 시작된 후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그들의 주장한 바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까지 자본주의 나라가 스스로 망하여 공산 국가가 된 사례가 어디에 있으며, 오히려 오늘의 공산 국가들은 보다 많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자기 체제의 결함을 메꾸어 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조차도 그의 초기 저서에서 자본주의란 저절로 망한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공산혁명에 있어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투쟁을 통해 새 것이 낡은 것을 없애도록 해야만 해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늘어 놓고 있다.

세째, 사물의 변화나 역사의 발전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

정(否定)에 부정을 거듭하는 이른바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장의 뒷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볼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노동자를 부추기어 계급투쟁을 일으키기 위한 억지 선동논리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빼뚫어진 눈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란 원래 현실을 완전히 파괴하고 부정한 폐허의 터전에 공산 왕국을 건설하려는 반역과 음모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노동만이 상품의 가치를 생산한다.

또 하나 공산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의 하나가 이른바 노동 가치설\*이란 가치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상품의 가치는 인간이 쏟아 넣은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예를 들어 칼 한 자루를 하루에 만들 수 있다면, 그 칼의 값은 하루 일을 하는 노동력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매겨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익을 붙이게 되면 그 이익은 자본가에 돌아가고 그 이익이 바로 ‘착취’라는 말로 표현된다.

\*노동가치설 : 모든 상품의 가치근거는 노동이며, 상품가치의 대소는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골간임. 그러나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이 똑같은 질을 가져야 하며, 모든 상품이 노동만으로 생산되어야 함으로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음.

그렇다면, 자본가가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드는 노동력만을 기준으로 물건 값을 매겨 팔면 착취가 없어진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음 생산은 어떻게 되고 기계와 시설의 손실은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

이같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이미 그 부당성이 증명된지 오래이다. 인간의 노동력은 하는 일에 따라서 그 가치 비중이 달라지는 법이다. 인간의 육체적 노력이 주로 투입되는 산업, 예컨대 비석을 만드는 석물공장에서는 노동력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현대 선진공업 분야에서는 자본, 기술, 시설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노동력의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대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원시적인 노동력의 크기만을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겠는가?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터널을 파는 사람은 얼마의 깊이를 팠느냐에 따라 그의 노동의 질과 양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땅을 파도 금광을 찾는 노동자는 땅을 얼마만큼 팠느냐에 따라 노동의 질과 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 묻혀 있는 광맥을 찾았느냐의 여부와 금광석의 생산량에 따라 노동의 질과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의 노동의 질과 양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산해 낸다고 해도 그 절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설계하는 기술자는 며칠이면 설계도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암을 연구하는 의학자는 그것이 몇십년 후에 가서 결론이 나올런지 모른다. 의학자에게 성과가 없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주는 하루 일

당(시간에 의한 노동의 양만 계산한)만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노동가치설을 공산주의자들은 왜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가?

그것은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의 생산수단이라 주장함으로써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 밖에 없는 임금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이 노동한 결과로 생산되는 물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전액을 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생산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 자본가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가에 맞서 투쟁케 하는 이른바 계급적 투쟁의식을 불러 일으켜 보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 공산주의 사회가 어떠한 사회라는 것인가?

다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망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란 도대체 어떠한 사회인가를 살펴보자

내 것 네 것 없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회가 “내 것 네 것 없이 골고루 잘사는 사

회”라고 선전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선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가로부터 빼앗은 토지, 공장, 기계와 일체의 개인재산은 국가가 소유한다. 국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만을 계획적으로 만들게 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 자유매매가 사라지고 인플레이가 없어진다. 작업능률은 놀랄 정도로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일하는 사람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 받으며, 노동하는 일상생활이 재미있고 여유있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생산이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여 국가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자는 스스로 생산을 관리할 수 있고, 공동사회의 생활도 습관이 되며, 누구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얻을 수가 있어서 원하는대로의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면 계급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 어느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했던 국가라는 것도 자연히 없어지고, 사람을 속박하는 법률도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도 없고, 법도 없는 지상천국이 이룩된다.』

이상이 공산주의의 시조 마르크스가 짜 맞춘 「낙원으로 가는 길」의 각본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에다 1875년의 「고오타 강령비판」\*이라는 책에서

\*고오타 강령 비판 : 1875년 독일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고오타에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을 결성하는 합동대회를 개최하여 채택한 강령에 대해 마르크스가 통렬히 비판한 문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활의 제1차적 욕구로 된 후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이고 있다. 언뜻 들으면 참으로 달콤한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꿈에 그려 온 이상세계가 곧 눈앞에 닥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터무니없는 공상(空想)에 불과함을 곧 알 수가 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대로만 일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사과나무 한그루가 있는데 사과가 10개 달려있다. 갑(甲)이라는 사람은 팔이 길다는 이유로 열심히 따고, 을(乙)이라는 사람은 나무그늘에 앉아 콧노래만 흥얼대다가 사과 10개를 다 따고 난 후, “노래를 불러주는 노동을 했으니 갑 네가 딴 것중 노래 값으로 5개를 내놓아라”, 또는 “요구에 따라 분배한다고 했으니 나는 노래를 불러 배가 고파 10개를 다 먹어야겠으니 내놓아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당한 일이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일인가?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제한된 자원 밖에 없어 인류가 아무리 아껴 써도 다 써서 없어질 날이 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요구대로 분배한다면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한 자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와같은 마르크스의 이상세계가 실현되자면 물품의 생산이 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뿐더러,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을 적절한 수준에서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공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또 『공산사회에서는 노동의 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노동이 제일 큰 인간의 욕구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과연 모든 욕구에 앞서서 “노동하고 싶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 너무나 분명하다.

### 국가조차 없어지고 마는 사회

이 밖에도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억압 장치로서 모든 악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자연히 이것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란 인류가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을 좀 더 복되고 이롭게 만들기 위해 원시 공동생활 시대로부터 차츰 차츰 발달시켜 온 기구이다. 더우기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조정과 보호 기구로서의 현대국가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 만일 국가가 없다면 아마도 사회의 안녕 질서는 하루 아침에 파괴되고,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은 하나도 제대로 보

장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라는 것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하루속히 없애야 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 가난해지고 자유가 없어진다면, 왜 그들은 아직도 국가를 없애지 않고 있는가?

오늘의 공산국가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 오면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오히려 국가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과 장치를 날로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마술사일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세상에서 한꺼번에 국가를 없애고 인간의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참으로 꾸준히 이상향(理想鄉)을 향해서 노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지금의 제도를 뒤집어엎자마자, 바로 이 지구상에 그러한 낙원이 건설되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이 아니면 내세(來世)에서나마 신(神)의 구원에 의하여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종교가 존재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현재의 자본주의 제도를 뒤엎기만 하면 이땅에 인간낙원이 실현되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한다. 공산주의를 일종의 사이비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고 정신적으로 구원해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선량하고 어리석은 신도들을 마음대로 속이고 도망가는 엉터리 종교단체의 허무맹랑한 교리(종교적 가르침)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민해방’이니 ‘지상낙원’이니 하는 것들이 그들의 손에 정권을 거머지기 위해 선량한 대중을 선동하고 현혹시키기 위한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건설한다는 것인가?

앞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목표는 전 세계에 걸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 피의 투쟁과 폭력혁명으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가만히 놔두어도 역사발전의 법칙에 따라 자연이 멸망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 사회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멸망과 공산주의 사회의 출

현이 결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망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다음에는 공산주의의 건설은 ‘피의 투쟁’과 ‘폭력적 수단’에 의해서 자본주의사회를 뒤엎어야만 앞당겨질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내세워 주민을 선동하고 채찍질 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회질서를 폭력으로 뒤엎어야만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무산계급이 혁명을 함으로써 잃을 것이란 쇠사슬 밖에 아무 것도 없다. 그대신 무산계급이 혁명을 함으로써 얻을 것은 전 세계인 것이다』라고 폭력혁명을 찬미하며 선동하고 있다. 또한 중공의 모택동도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총으로만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 적이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 여러 개의 공산국가가 있지만 그 나라가 공산화된 것은 몇몇 정권을 노리는 자들에 의한 폭력과 음모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지, 그 어느 곳에서도 국민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만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다면, 공산당은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며, 공산국가의 형태를 가진 나라가 오늘에까지 지구상에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다.

### 폭력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몇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 하나가 소위 『양(量)적인 변화가

어느정도 쌓이면 질(質)적인 변화가 온다』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변증법적 논리이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용광로 속에서 철광석은 그대로 있으나 일정한 온도에 이르면 쇳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물질에 어떤 비약적 충격이 가해지면 양(量)에서 질(質)로의 변화가 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산당들은 이러한 억지 논리를 끌어들이어 사회 현상에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 폭력혁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물이 섭씨 100°가 넘으면 수증기가 되고 0°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는 등 그 형태가 변화되는 현상을 보고 마치 물의 본질까지도 변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수증기란 물에 열이 가해 짐으로써 물이 잠시 그 형태를 바꾼 것이지, 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 것이 아님은 명백한 것이 아니겠는가? 폭력혁명을 하면 인간사회가 질적으로 변하여 마치 신선(神仙)의 사회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사물과 현상이든 그 속에는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이 있어 서로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회에는 근로자계급과 자본가계급으로 대립되어 있어 서로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어 있고, 서로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없게 되어 있기때문에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쓰러뜨려 없애버려야만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현상이든 심리적인 현상이든 잘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두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전기와 음전기가 협력해서 빛과 힘을 내고 어둠과 밝음이 번갈아 가며 있어야 이 세상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남자와 여자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해야 아이도 낳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이 사물의 운동법칙을 이와 같이 일부러 대립, 갈등, 투쟁, 배척의 관계로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 하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부정(否定)의 부정(否定)법칙’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물에는 내부에 서로 대립하고 앞 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끊임없이 낡은 것은 부정되고 새 것이 요구되며, 또 새 것은 또 다른 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주의는 그 자체에 안고 있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덤을 파게되어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는 이른바 ‘변증법적 역사 발전’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억지로 꿰어 맞추는 데에 있는데, 이는 “손톱 뾰는 줄은 알아도 심장 썩는 줄은 모른다”는 식으로서,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최종목표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도 일단 세워지기만 하면 다시 부정되어 멸망할 운명에 놓이는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주장을 서슴치 않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세워 근로자와 자본가 간에 싸움을 불이고, 그 틈에 자기들은 정권을 잡아보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속셈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이상향을 건설한다고 해 놓고는 서로간의 투쟁과 증오를 강요하니,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훑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이 밖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요즈음에 와서 그들이 노리는 세계공산화라는 목표가 폭력혁명이란 방법으로 쉽사리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자주’ ‘평화’라는 말을 앞장세워 자유세계의 사람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평화’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평화는 상대방을 이길만큼 자신의 힘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잠시 폭력 수단에 의한 싸움을 걸지 않겠다는 전술적인 구호일 뿐, 평화의 가면 뒤에서는 훗날의 전쟁과 무력투쟁을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무기를 손질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리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 공산집단이 겉으로 ‘평화’를 내세우고 남침전쟁을 피하거나 우리측에 무력 도발을 수 없이 일으켜 온 사례를 지난 40여년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본 바 있다.

## ·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현대 공산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함에 있어 특히 주의를 기울

여야 될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입버릇처럼 뒤섞어 쓰고 있는 주요 용어들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 것인가를 구별하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우리가 특히 흔히 섞어 쓰고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란 말의 쓰임과 뜻이 어떻게 다르고 때로는 같은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사회의 건설’이라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놓을 수 없는 공상적 목표를 당초부터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기고, 그 책임을 벗어나 보려는 속임수의 하나로 오늘에 와서 이른바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회’라는 단어를 흔히 빌려 쓰고 있다.

### 과도적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로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 단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붉은 혁명을 완수하고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라 부르지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라 하고 그들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용어와는 그 뜻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마르크스 이전부터 있어 왔던 본

래의 사회주의 사상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사회주의란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란 말을 쓸 때는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민주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이른바 ‘노동계급의 독재’\*체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의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혼란시켜, 그들의 목표 달성에 동조케 하기 위해 일부러 공산주의란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의 뜻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공산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이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긴 했으나 아직도 경제권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자본가계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안심이 안되니 철저한 계급독재(階級獨裁)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독재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라 하는데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며,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실업과 가난이 없어지게

\*노동계급독재 :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단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도 일부 남아 있는 자본가계급에 철저히 보복하고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동계급이 독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임.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하나, 사실은 1인독재 체제를 합리화 하기 위한 것임.

된다』고 한다.

이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단계, 즉 생산이 끝없이 증가되며 모든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전면적으로 발전되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사회로 간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혁명이 있는지 70년이 가까운 소련에서도 저들은 아직도 사회주의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언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와같은 공산당식 사회주의와 본래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자.

## 원래의 사회주의가 뜻하는 것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생각해 내놓기 이전부터 사회주의는 사회개혁 사상의 하나로 등장해 온 것이다. 특히 18세기 불란서를 중심으로한 철학자들이 사회개혁을 주장하면서 들고 나오기 시작한 당초의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문제점, 다시말해 실업, 공황, 빈부격차 및 사회적 불평 등을 하나씩 차분히 고쳐 나가자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온건한 인간주의(人間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을 기본수단으로 삼는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공산주의가 정통적인 국가나 민주적 통치기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 제도를 폭력혁명에 의해 일시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가 인간을 사악하게 하는 근원이라 하여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에서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나, 이러한 사회주의에의 개혁을 민주주의적 절차, 특히 의회 민주주의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 공산주의의 과격사상과는 크게 다르다.

마르크스 자신도 『사회주의는 자본가의 이론과 운동인데 반하여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의 이론과 운동』이라고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현재의 공산세계 그 자체를 가르키는 것으로, 공산사회가 이룩되면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해놓고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고 노예화한 데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잠시 자유세계에서 빌어 쓰고 있는 말에 불과할 뿐이다.



# 3

---

## 공산주의는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공산정권을 세우게 되었는가?

오늘의 공산국가들  
소련의 경우  
동부유럽과 북한의 경우  
중공의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활개를 치는가?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풀려 있을 때  
공산국가와 인접한 곳에

공산주의자들이 속이는 수법은 무엇인가?

선전선동의 수법과 구호들  
선전선동이 노리는 것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통일 구호의 속셈  
'연방제' 통일방안  
대화를 하자는 또 다른 속셈



# 3

##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노리는가?

###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공산정권을 세우게 되었는가?

#### 오늘의 공산국가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160여개의 크고 작은 국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중 공산주의 국가는 16개이다. 나라 수로 따지면 8분의 1정도이며, 땅 넓이로 따지면 절반쯤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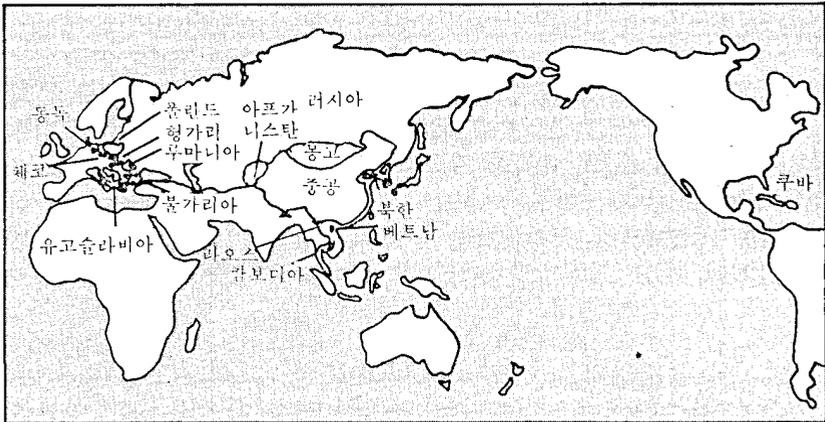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소련과 중공 두나라 때문이고, 인구로 보면,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쯤이 공산 국가에 살고 있는 셈이 되기는 하지만, 중공 하나만의 인구가 10억 이상이 되기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때문에 그렇게 된다. 얼핏 보면 지구 넓이의 반이나 차지하고, 인구도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공산세력이 대단한 규모인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가장 큰 나라인 소련과 중공을 빼고 나면 나머지 공산국가의 넓이는 전부 합쳐야 전체 넓이의 50분의 1도 안되고, 인구도

소련과 중공을 빼고 생각하면, 전세계 총인구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공산세력이란 별 것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1917년 소련에서 ‘붉은혁명’이 일어나 제정 러시아의 ‘짜아르’정권 \*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게 된 이래 오늘날까지 약 68년동안 지구상에는 16개의 나라들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세계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실제로 어떤 술책을 썼던가? 그 역사적 실례를 알아보기 위해 이미 공산혁명에 성공한 몇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짜아르(tsar)정권 : 18세기 러시아의 ‘짜아르’ 라는 황제에 의한 전제정권(專制政權)을 함. 당시 러시아에서는 대지주인 귀족이 다른 유럽 여러나라에서의 귀족과는 달리 ‘짜아르’ 권력을 제약하는 힘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짜아르’ 권력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급급하였음. 그러나 ‘짜아르’ 정권은 1917년 ‘레닌’이 주도하는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종말을 보게 됨.

## 소련의 경우

소련은 1917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소련은 공산주의가 된 뒤의 나라 이름이고 그 전에는 러시아라고 하여 황제와 귀족들이 지배하는 군주국가였다. 당시 러시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지주는 몇 사람 되지 않았다.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공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몇 백명 밖에 안되는 귀족들이 러시아의 모든 토지를 독차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은 땅이 없고, 놀고 먹는 몇 사람의 귀족들이 모든 땅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황제 자신이 가장 큰 지주였기 때문에 토지개혁 소리만 나와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했었다. 그러는 중에도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도 많이 잡혀 죽었다.

안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때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러시아도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귀족들은 장교로 나가고 농민, 노동자들은 병사로 싸움터에 나갔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때의 유럽 여러나라들 중 제일 못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이기기는 어려웠다. 맨손으로 싸우다시피 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한 죽는 사람들은 거의가 소작이나 부쳐 먹는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따라

서 민심이 가라앉을 수가 없었다.

한편, 전쟁이 나서 물자가 달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급이 말이 아니었다. 배급 받으려고 줄을 서 있으면 줄의 중간도 못와서 배급줄 물건이 동이나 버렸다. 도시에서 배급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공장 노동자들이었는데, 거의 매일 이 모양으로 배급이 제대로 안되니 불평,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러시아 공산당은 “농민에게는 토지를!” “병사에게는 평화를!” “노동자에게는 빵을!”이라는 귀가 번쩍 트이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시 생활고에 허덕이던 러시아 사람들로서는 공산당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다만 레닌이 내세운 구호에만 귀가 솔깃하여 듣기 시작했다. 농민은 농민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레닌의 구호에 유혹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공산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났다.

공산당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 집중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불어 넣었다. 주로 도시 노동자들 가운데서 그런 교육의 대



\*레닌 : 1870년에 태어나 1917년 러시아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임. 레닌의 본명은 블라디미르울리아노프(Vladimir Ilyich Ulyanov)였으나 1912년부터 그는 스스로를 ‘레나강으로부터 온 사나이’라는 뜻으로 레닌이라 불렀음. 공산주의를 흔히 마르크스·레닌주의라 하는 것은 그가 마르크스의 주장을 실천에 옮긴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임. 저서로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국주의론」 등이 있음

상을 찾아냈다. 그런 뒤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붉은 군대’ (적위대)를 조직토록 하였다. 그들을 앞장 세워서 폭동을 일으키고 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공산당은 뒤에서 명령을 내려 조종만 하고 적위대가 앞에서 총알받이로 뛰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붉은 군대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에는 몰들었지만 사실 군대로서는 전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 었기 때문에 막상 러시아 황제의 정규 군대와 싸움이 붙었을 때는 이길 자신이 별로 없었다. 그러자 공산당은 러시아 황제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공작을 했다. 독일군과의 싸움터에 나간 당시 러시아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농촌 출신들이었는데, 이들 농촌 출신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군대 막사마다 “곧 토지 개혁을 한단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 땅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 마련이다. 이같은 소문을 들은 병사들이 하나씩 둘씩 한 밤중에 주둔지의 막사를 빠져 나와 몰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행여나 전장에서 죽으면 토지개혁 때 농토를 나누어 받지 못할까 봐서 그런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병을 잃어버린 채 귀족출신의 장교뿐인 러시아 군대는 몇사람 불과했던 붉은 군대가 들고 일어나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전투력이 없게 되었다. 마침내 레닌이 이끄는 공산당은 이들 붉은 군대를 앞세워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1917년 11월 7일 이른바 ‘10월혁명’\*에 성공하여 당시의 짜아르 정권을 거꾸러뜨리고

\*10월혁명 : 러시아 달력으로는 11월 7일이 10월 25일에 해당됨. 그렇기 때문에 ‘10월혁명’이란 말을 쓰고 있음.

공산당 정권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공산당은 이 폭동과정에서 귀족이나 지주들을 모두 숙청하고 토지를 빼앗았다. 그러나 토지가 농민들의 소유가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과거 귀족이나 지주들이 갖고 있던 토지는 ‘국유화’, ‘집단화’ 라는 이름 아래 공산당이 차지하게 되어 공산당이 새로운 지주가 되고, 농민은 집단농장의 농장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을 뿐이다. 행여나 했던 생각이 빗나갔다. 아니, 철석같이 믿고 농토가 농민의 손으로 돌아 올 줄 알았지만 농민은 공산당이 지주가 된 농토에 노예로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농민에게 토지를’이 아니라 ‘공산당이 지주인 토지에 농민을’이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노동자는 과연 배급이라도 많이 받게 되었는가? 배급을 많이 받게는 되었다. 그러나, 그 배급은 빵이나 옷가지, 고기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르마’라고 불리는 이름의 개인별 작업량을 할당받게 된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총알받이 노릇을 한 대가라는 것이 고작 기왕에 공산주의를 위해서 뛰었으니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만이 딸렸을 뿐이고, 굶주린 배를 좀더 움켜쥐라는 명령만을 배급받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소련에서는 노동자들이 배급을 기다리며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몇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도 중간에 배급품이 떨어져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받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민과 노동자가 공산당을 위해

서 한껏 재주는 부렸지만 돈을 벌어 배부르게 된 것은 공산당원 몇 사람 뿐이었다. 곰에게는 그저 이튿날 재주를 부리는 데 필요한 만 큼의 떡이 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 동부유럽과 북한의 경우

동부 유럽의 폴란드, 동독, 체코 등의 공산주의 나라와 북한은 다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 점령군의 무력을 등에 업고 공산당들이 권력을 쥐게 된 곳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부유럽과 북한지역에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간 소련은 본래의 목적(전쟁에 진 독일, 이태리 및 일본군의 무장해제)보다는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더욱 열중했다. ‘염불보다 잣 밥’에 뜻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소련은 무력으로 뒷받침만 하고 실제로는 각각 그 나라에 미리 훈련하여 배치한 공산당원 중에서 소련에 충성을 바칠만한 인물을 골라서 이 들을 앞장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도록 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김일성정권을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부유럽 7개나라와 북한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잡이로 뽑힌 8명의 꼭두각시들은 모두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방법이 거의 비슷하였다. 여기서 그 방법을 대충 알아보기



해방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타난 김일성.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에 나타난 33살의 김일성은 소련점령군이 급조해 내세운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 세워져 있는 태극깃발들이 인상적이다.

로 한다.

소련의 꼭두각시들은 각기 그 나라에 진을 치고 있던 소련군의 뒷받침을 받기는 하였지만 막상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발언권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각 나라에 공산당이 생긴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고, 따라서 당원 수도 극히 소수였으며 그간의 활동도 보잘 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꼭두각시들은 지난 날에 독립운동을 한 민족주의 인사들을 강제로 앞장 세워 국민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즉 무슨 '인민전선'이니 '민족통일전선'이니 '민주전선'이니 하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자들이 남긴 나머지 뿌리를 뽑아내자고 선동하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민족의 이익을 대표하고 민족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운동에 앞장 섰던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는 소련 점령군이 큰 역할을 했다. 즉 소련 점령군 사령관은 그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불러 은근히 압력을 넣으면서 공산당이 하자는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는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틈엔 비집고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소련군이 부추켜 주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공산당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 이들을 이간질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사탕 발림 하면서 마치 소련에서 공산당이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 선전에 말려들어 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늘려 나갔다.

온갖 달콤한 말과 선전으로서 순진한 사람들을 흘려서 결국 공산주의 편을 들도록 만드는 것을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노리는 바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기 편을 세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세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갑, 을, 병이라는 적이 있으면 우선 을, 병과 손잡아 갑을 넘어뜨리고, 다음에 병과 손잡아 을을 넘어뜨린 후 마지막엔 싸우느라고 힘이 약해진 병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통일전선전술을 써서 공산주의 세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니, 결국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자들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들을 하나씩 들썩 숙청해 나가면서 그 자리를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되니 정부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이름도 못듣던 공산주의자들이 나서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을 앞세웠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았던 것이다.

마치 여우가 호랑이 앞에 걸어가면서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 다른 짐승들을 쫓아 내듯이, 등 뒤의 소련 점령군을 배경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공산화된 동부유럽 일곱 나라와 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써먹는 선전·선동 방법에 의하여 공산혁명을 내부에서부터 불러 일으켰던 예와는 그 수법이 많이 다른 것이다.

## 중공의 경우

중국에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는 모택동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동안(1937~1945) '민족'과 '평등'의 깃발을 앞세워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다녔다. 당시 중국을 다스린 것은 국민당이라는 자유주의 당이었다.

국민당의 당수는 장개석\*이라는 사람으로 중국의 국가원수적인 총통을 겸하고 있었다. 장개석은 초기에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나가 공산주의자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았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모택동\*은 잼싸게 “일본이 지금 이렇게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데 같은 중국사람끼리 싸워서야 되겠느냐, 민족의 깃발 아래 함께 뭉쳐서 일본과 싸워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중국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술책을 써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단 손을 잡고 일본과 싸우자는 데까지 유도해 나가는 데 성공을 했다. 이것을 ‘국공합작’\*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부터 장개석 정부의 실수는 시작된 것이다. 일본과 싸우는 데 힘을 합치자고 한 모택동과 그 부하들인 공산당원들은 장개석 군대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싸움은 안하고 공산주의만 선전하면서 공산당의 힘을 키우는 데 전력을 집중하였다.

\*장개석(蔣介石) : 1887년 출생. 1918년 국민당에 가입하여 1925년 손문(孫文)이 사망한 뒤 남경 혁명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됨. 중·일전쟁 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밀려 1949년 대만으로 건너왔으며, 자유중국의 총통으로 본토 수복을 꿈꾸다가 1975년 사망함.

\*모택동(毛澤東) : 1893년 출생. 1921년 중국공산당 창립대회에 호남성대표로 참가한 것을 계기로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였음. 게릴라에 의한 지구전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농촌에 파고 들어 국민당의 공격을 견디면서 ‘국공합작’을 속임수로 하여 1949년 중국 대륙을 차지하였음. 그 후로부터 1976년 사망하기 까지 ‘인민공사’,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1인 우상화체제를 확립했으나, 지금은 등소평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국공합작(國共合作) : 중국에서 공산당이 힘이 약할때 쓴 협상전술로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전선을 펴 일본군을 대항한 것을 말함. 제1차는 1924년에서 1927년까지로 공산당은 국민당 조직내에 파고 들어 분열을 조장하였음. 제2차는 1937년에서 1945년까지였는데, 중·일전쟁을 구실로 일본군과 싸우는 척하며 힘을 키워 나갔음.

모택동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본과 싸우는 데는 1할, 국민당과 협력하는 데 2할, 공산당을 키우는 데, 7할의 힘을 써라!” 일본과 싸우는 데 힘을 합치자고 해놓고 1할의 힘만을 쓰라고 한 것은 그들이 노리는 바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속셈을 뻔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공산당을 키우기 위해 7할의 힘을 기울였던 정치선전은 주로 어떤 것이었던가? 그것은 주로 농민들한테는 소련에서처럼 토지개혁을 해서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고, 지식층한테는 국민당과 장개석을 모략하고 헐뜯는 것이었다.

국민당이 민족의 이익을 미국에 팔아먹고 있다느니, 장개석이 사치, 방탕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국민당과 중국 국민사이에 이간질을 했다. 장개석과 국민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통일전선’이란 것을 퍼서 일단 같이 힘을 합해 일본군과 싸우는 것처럼 해놓고는 국민당편의 사람들에게 자기 편에 들어오면 나중에 정권을 잡은 뒤에 한 몫 주겠다는 식으로 유혹을 했던 것이다.

1945년 중국대륙에서 일본과 싸움이 끝나고 국민당과 공산당만 남게 되었을 때는 이미 공산당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당은 일본군과 열심히 싸우느라고 많은 병사를 잃고 희생을 크게 치르고 있었지만, 공산군은 일본군과의 전투는 피하고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군의 뒤만 따라 다니면서 공산주의만 선전하며 군사력을 착실히 키워 왔기 때문이었다. 이제 힘으로 맞붙을 만큼 공산당이 자라게 된 것이다.

이 때부터 공산당은 달콤한 선전 대신에 그들이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군대 수를 늘려 가면서 국민당측의 군대를 밀어부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내세웠던 민족이니 평등이니 민주, 자유, 평화같은 빛 좋은 선전 문구들은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중국 사람들이 속았구나 해서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늦고 말았던 것이다.

1949년 10월1일 드디어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군은 중국대륙을 모두 차지하게 되고, 한 때 그들보다 훨씬 큰 세력을 이루었던 장개석 군대는 대륙에서 쫓겨나 겨우 대만이란 조그마한 섬을 차지하여 나라를 꾸려나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공산당의 달콤한 말에 속아 공산당의 마수에 넘어가게 된 예가 중국의 경우이다.



모택동이 1945년 연합정부 수립 당시 장개석에게 국공합작을 제의한 이후 4년뒤인 1949년 10월 1일에는 그가 이끄는 공산군이 중국대륙을 모두 차지하고 중공정권 창건을 발표 하였다.

##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활개를 치는가?

앞에서 공산세계 여러 나라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된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상대방의 어떤 점을 노려, 어떠한 수법을 써서 공산화의 목적을 달성하여 왔던가 하는 점이다.

###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 부터 즐겨 들던 옛날 이야기 중에 유령이 나타나는 때는 의례 어둠이 깔리고 가을 비가 부슬부슬 올 때가 되듯, 공산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고 활개치기 시작하는 것은 대개 전쟁이 막 끝났을 때나, 그 나라의 내부 사정이 극도로 혼란에 빠져 사회가 불안하고 백성의 생활이 지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다.

예컨대, 소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이 끝날 무렵인 1917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중공과 소련 사이에 끼어 있는 몽고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21년에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다.

현재 동부유럽에는 8개 공산국가(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체코, 유고, 루마니아, 알바니아, 헝가리)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1941~1945)이 끝난 뒤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꼭두각시가 되어 가지고 돌아와서 한반도의 38도선 북쪽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것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다.

또한 모택동이 중국 대륙에 공산정권을 세운 것(1949년)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장개석을 우두머리로 한 국민당 정부가 일본과 싸우느라 힘이 다 빠진 뒤의 혼란을 틈타서 이다. 월남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월남과 함께 그 옆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한꺼번에 공산국가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전쟁이 끝난 뒤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할 때를 노려서 활동을 본격화 한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주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흘려서 “공산당도 나쁜 것은 아니구나”하고 생각하도록 만들거나, “공산당이 하자는 대로 해보면 뭔가 될 것도 같구나” 하고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때에 따라서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을 뒤로 돌아가서 덮치는 식으로 공산화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풀려 있을 때

특히 공산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단합이 안되어 서로 싸움을 하거나 부정과 부패가 활개치는 곳에는 영락없이 공산주의

자들이 뉘새를 맡고 달려든다.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이 그렇게 가깝고 이웃같아도 공산주의의 마수가 서부 유럽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은, 서부 유럽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을 거울 보듯이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 이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건실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있고, 또 그러한 소문이 밖으로 나면 사깃군이 불지를 앓는다. 반대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한번은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사깃군이 되든지 하고 만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사깃군 비슷한 생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의 국민들은 대개 이러한 공산주의의 생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공산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솔깃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덩달아 춤추다가 제정신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이미 굶판은 끝나고 자신들은 철로 된 우리안에 갇혀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꼴인 것이다. 뒤 늦게야 발버둥을 쳐보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만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폴란드 국민들이 ‘자유노조’\*를 결성하고 이

\*자유노조 : 1980년 초 폴란드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체제 자유화운동의 추진조직임. 처음 경제적 불만에서 시작된 파업이 전국을 휩쓸자 지식인, 청년, 종교집단 등이 측면 지원하여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함.

를 중심으로 소련의 심한 간섭과 억압을 벗어나려 항거하고 나섰지만, 소련과 폴란드의 공산당들이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나섬으로써 이같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 공산국가와 인접한 곳에

지구상에서 공산국가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을 들여다 보면, 중남미의 쿠바 등 몇 나라를 빼놓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서쪽으로 동부유럽의 8개 공산국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소련 동쪽으로 몽고, 중공, 북한이 붙어 있고, 중공 남쪽으로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가 이어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산주의는 어린이들이 땅뺨기놀이 하듯이 인접한 국가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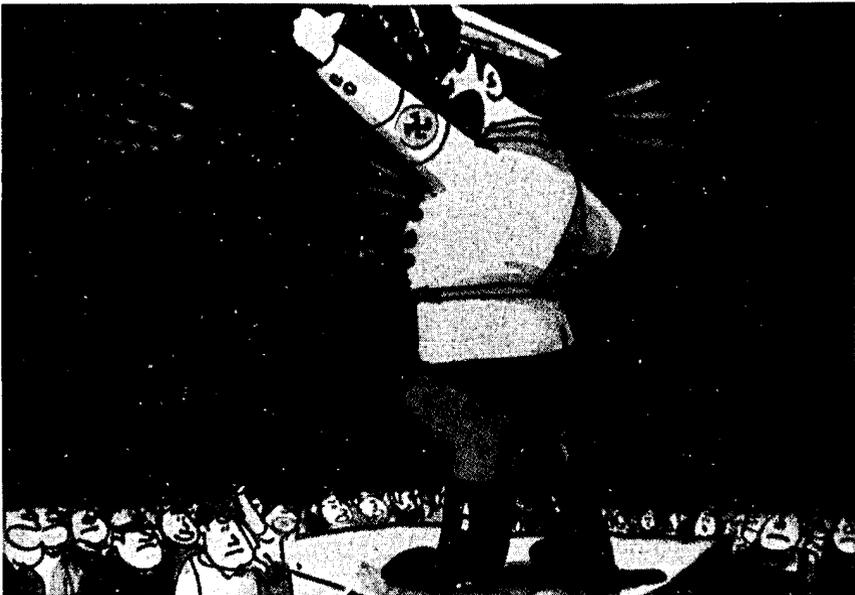
그러나 공산국가 옆에 있다고 하여서 모두 공산주의에 전염되고 공산당에 먹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한눈 팔고 헛점을 보이는 나라들이나 넘보는 것이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면으로 노려 보고 있는 나라에게는 감히 덤빌 엄두도 못낸다.

중남미의 쿠바가 당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건드려 보아도 꼬떡도 안하기 때문에 하나씩 지나쳐서 거기까지 간 것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란 옆에 있으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정신차려 경계하면 결국 발을 붙이지 못하고 비켜나가서 만만하고 흥가분한 상대만을 골라 갑자기 덮치거나 속이려드는 교활한 여우와 같은 존재이다.

## 공산주의자들이 속이는 수법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 선량한 주민을 속여왔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슬깃한 말로 군중의 감정을 부추기고 부채질하여 폭력을 휘두르게 한다.

## 선전 선동의 수법과 구호들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을 자기편에 끌어 들이기 위한 선전 선동(宣傳煽動)이다. 선전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 귀에 솔깃한 말들만을 골라 요리조리 더듬어 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며, 선동이라는 것은 한자의 풀이 뜻 그대로 어떤 문제를 부채질하여 듣는 사람의 부야를 돋구거나 흥분시켜서 뭔가 때려 부수든지 아니면 뛰쳐 나가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전은 대개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생각을 고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전은 대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마음을 흔들어 가는 유혹같은 것이다.

그러나 선동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생각치도 않는 충동적인 심리 상태에 빠지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돌연한 감정에 호소해서 행동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동은 선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 집회 장소 같은 데서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다. 순서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먼저 선전으로 충동질해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생각되면, 그 때 가서 선동으로 불을 질러 군중으로 하여금 멋모르고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선전 선동을 할 때 무슨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는가?

『공산주의는 뭐든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뜻이다』라는 식으로 말머리를 먼저 풀기 시작한다. 이어서 『공산주의는 다같이 잘 살자는 주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입는 데서 남보다 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그 말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공산주의의 선전이론을 정확히 이미 알고 있거나, 신문이나 책 또는 잡지 같은 데서 공산국가의 사정을 읽거나 들은 사람은 또 그놈의 소리하고 넘겨 버리지만, 그런 이야기마저 듣거나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말대로만 되면 나쁘지 않겠구나” 하고 끌려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쯤 됐다 싶으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국가가 되면 세금도 안낸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돈 많다고 거드름 피거나 권세있는 자들의 눈꼴 사나운 일을 안볼 수 있다.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민은 평등하여 똑 같이 대접받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한다.

그럴 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

『자! 이런 좋은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이런 세상이 와야만 된다. 지금 같아서야 없는 놈은 어디 사람 취급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오려면 세상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된다』하는 식으로 화를 돋우고 흥분을 시킨다. 여기에 걸려들면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선전·선동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가?

주로 그 사회에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하거나 배움이 적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선전 선동을 한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학생쯤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와는 다르게 선전 선동을 한다. 선전 선동의 내용부터가 달라지는 것이다.

대체로 생활이 풍족하고 남보다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중산층에 속하는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은 정치문제에 유달리 관심이 크고, 정부의 하는 일에 비판적인 것이 우리들의 민주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같이 비판적인 지식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선동자들은 팜프렛을 돌리거나 책자를 통해『공산주의를 하면 좀 더 훌륭한 사회가 되고 나라를 좀 더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나라가 빨리 강국이 되어야 국제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난하고 좀 덜 배운 사람들에게는 나라 안에서의 평등한 대우, 차별없는 사회 건설로 유혹을 하고, 일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지식층한테는 국제적인 평등문제를 가지고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이다.

간혹 지식층 중에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공산주의를 잘만 하면 나라를 빨리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의 공산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늦어졌을 뿐이지, 본래 처방대로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같은 어설피른 생각들의 틈바구니를 교묘히 파고 들어 붉은 선동을 일삼는 것이다.

### 선전 선동이 노리는 것

공산주의자들이 일삼는 선전 선동이 노리는 바는 한마디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질서가 깨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들은 이렇게 시끄럽고 질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활개를 칠 수 있는 때는 바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사회질서가 깨어져 크게 혼란에 빠진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이웃 집 불구경하는 사이에 도둑이 잘 들 듯이 사회가 시끄럽고 질서가 흔들려야만 그들의 정권을 뺏으려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값진 물건들을 많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된 나라 사람들은 뒤늦게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때는 늦는다. 그 전까지는 입안의 사탕이라도 꺼내줄듯이

친절하고 상냥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본래 욕심을 채우고 난 뒤부터는 언제 보았느냐는 듯이 돌아서기 때문이다.

##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1945년 이래 휴전선의 이북 북한 땅에 도사리고 있는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자나 깨나 노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화이다. 그들은 남한땅을 몽땅 자기들의 붉은 손아귀에 거머지기 위해 지난 1950년 6.25 남침전쟁이라는 하늘과 사람이 다 같이 분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을 일으켜서도 결코 남한땅을 차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북한 공산집단은 다른 방법으로 남한 땅을 공산화 하는 길이 없나 생각한 끝에 평화통일의 가면을 쓰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 평화통일 구호의 속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걸핏하면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통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북한의 주민들을 부리고, 남한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는 데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진실로 통일을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

는 척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다 한핏줄의 동포이므로 모두가 주인이 되어 통일의 기쁨과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공산당과 공산당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만이 중심이 되어 자기들에게만 이로운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이란 말도 우리와는 전혀 그 뜻이 다르다. 그들은 남한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을 좋아하거나 벗으로 인정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그들과 손을 잡고 협력하여 결국 전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는 통일을 비로소 평화통일이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남북한이 싸우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하는 것을 평화통일이라고 부르는 데,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오로지 공산화 통일만을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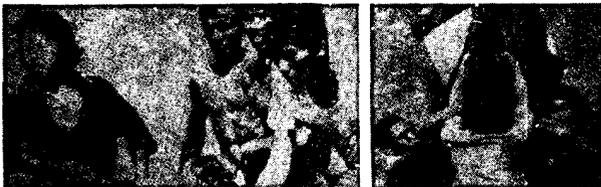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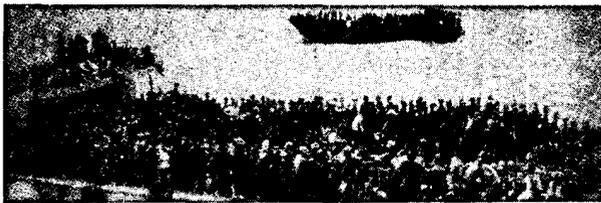
공산주의자들은 이처럼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쓰면서 듣는 사람이 혼동하기 쉽도록 만든다.

이같은 방식은 바로 월맹 공산당이 월남을 공산화시키는 데 사용하였던 수법이다. 월맹의 공산 정권은 ‘베트콩’이라고 하는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을 남쪽으로 내려 보내 간첩활동과 함께 민심을 어지럽히기 위해 파괴활동을 일삼게 하는 한편, 공산주의를 선전케하여 월남의 반공·자유정권을 무너뜨리도록 공작하였던 것이다.

당시 월남의 대학생, 종교인, 지식층들은 베트콩들이 퍼뜨린 헛

소문과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민족주의라는 허울좋은 깃발과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자는 헛된 구호에 속아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면서 “부패 정부를 타도 하자”. “미군 물러나라” 외치면서 반정부 반미 행동에 앞장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을 도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꼴을 스스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일을 우리는 어찌 남의 일이라 흉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월남의 학생들과 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선동구호와 연합술책에 휘말려 자기나라의 내부혼란을 부채질하던 당시의 소요 현장이다. 이후 월남인들은 그들이 자신이 자초한 조국의 패망으로 후회와 고통속에서 이른바 “보트피플”이 되어 바다를 떠돌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비참한 모습을 세계만방에 드러내 놓고 말았다.

## ‘연방제’ 통일방안

더우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몇 해 전부터 이른바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연방제 통일의 깃발아래 붉은 통일을 성취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북한 공산당들은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무슨 민족대단결이다, 민주적인 통일이다, 평화통일이다 하여 듣기 좋은 말로서 우리를 홀리려 들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걸핏하면 쓰고 나오는 선전 선동의 말장난임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이에 속아 넘어갈까 염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연방제에 숨겨져 있는 해독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김일성은 연방제를 제안, 주장하면서 그럴듯한 말들을 쭉 늘어 놓고 자기들은 조국의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만 하자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얼른 들으면 연방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교묘하게 말을 꾸며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피하는 바는 결코 연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화 통일을 기하자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에 월맹이 월남을 공산화 시킨 방식을 우리에게 그대로 써먹어 보겠다는 꿈꿉이 속을 연방제에 달아 놓고 있는 꼬리표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연방제를 하기 전에 남한의 현정부는 물러나고 대신에 공산주의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른바 ‘민주적 인사’ 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간첩활동을 못하게 하는 법률을 없애고 반공정책을 철폐하며, 미군이 남한에서 물러 나가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붙여 놓고 있다.

이것은 곧 남한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남한을 덮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조건과 주변환경을 만들어 놓은 뒤에 연방제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연방제를 하면 연방제로 끝날 것인가? 그 답은 뻔하다.

연방제란 하나의 덩을 놓아 이로써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그들의 기본목표를 손쉽게 달성해 보자는 것일 뿐이다.

### 대화를 하지는 또 다른 속셈

북한 공산당들이 대화를 하자고 할 때에는 늘 그 뒤에 정반대의 속셈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1971년부터 1972년 사이 남북한의 대표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땅위에서는 남북대화를 한참 하고 있을때 땅밑에서는 남침을 노린 땅굴이 파여지고 있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전쟁과 평화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같다. 겉으로는 평화의 얼굴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상대방의 틈을 노려 일격에 쳐들어 갈려는 전쟁의 칼을 끊임없이 갈고 있는 것이 저들의 습성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숨겨진 속셈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평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먼저 경계할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우리 내부의 불신과 혼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쪽에 가서는 저말 하고, 저쪽에 가서는 또 다른 말을 한다. 예컨대, 두 사람이 사과 한개를 놓고 어떻게 나누어 먹을 것인가 궁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 이쪽 사람에게는 네가 더 먹어야 한다고 하고, 저쪽 사람에게는 네가 더 먹어야 한다고 싸움을 붙인다. 두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죽자 살자 싸움판을 벌이고 나서 돌아서면, 막상 무엇 때문에 싸움을 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사과만 도둑맞아 없어져 버리는 경우와 비슷하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색은 조금도 안하고 마치 공정한 재판관인 양 행세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싸움을 붙이고 다닌다.

이를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일단 여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남은 것은 상처와 배고픔 뿐이다. 싸움을 계속하면 서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깨닫고 도중에 싸움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눈은 멍들고 상처는 커다랗게 난 후이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발목을 잡히지 말아야지 일단 발을 헛딛기만 하면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완치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고 만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갖가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슬기로운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된다.



# 4

---

## 공산주의는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하나의 당 '공산당'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공산당에 의한 1당독재

100% 투표 100% 찬성하는 영터리 선거

누구를 위한 공산당인가?

공산당의 꼭두각시인 사회단체들

한사람 손아귀에 모든 것이 쥐어져 있고 우상처럼 떠받들게 하는 사회

1인 독재 체제

개인 우상화와 피의 숙청

우상화와 숙청의 사례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획하는 사회

내것을 가질 수 없는 사회

사유재산 제도가 과연 인류의 적인가?

내것을 가질 수 없는 사회는 왜 발전하지 못하나

공산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

변모하는 공산주의 경제

집단화되고 격리된 전체주의 사회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의 집단주의 사회

안팎으로 막혀 있는 폐쇄사회



# 4

공산주의는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하나의 당 ‘공산당’ (共産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중심으로 한 몇몇의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에서 모여 이른바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이래 오늘까지 공산주의란 하나의 망령(亡靈)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어둡고 후미진 곳과 후진 국가들에 가득한 빈곤과 불평, 불만의 여울목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른바 공산혁명을 위한 계급투쟁을 부채질하여 왔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하는 일 없이 배불리 사는 자본가들을 때려 눕히고,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모든 사회제도와 정부를 뒤엎어 버려야만 계급적 차별이 없어지고 어느 누구도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는 가운데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노동자의 지상낙원’이 이룩된다고 선전해 왔다.

\*공산당선언 :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로 영국에 거주하는 독일인 노동자로 구성된 ‘공산주의 동맹’의 강령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최초의 문헌(文典)임. 1848년 2월 런던에서 출판되었으며 모두 4부로 나뉘어 있음.

그렇다면 이미 피의 혁명을 통하여 공산국가를 세운 여러나라들의 현실이 과연 그들이 선전해 온 바와 같은 계급적 차별과 억압, 그리고 빈곤이 없는 낙원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 공산당에 의한 1당독재

우선 그들의 정치체제를 보면, 공산주의 국가란 한마디로 공산당만이 지배하는 나라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 160여개 나라 중 16개국에서 '통일노동자당' '사회주의 통일당', '인민 혁명당', '노동당' 등과 같이 각기 이름만을 달리하는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공산국가들에 있어서도 자유 민주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있고 형식적으로나마 3권분립\*이라 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기 분리되어 다른 기관에 주어져 있다. 얼핏 보면, 민주정치의 간판이라 할 법적, 제도적 면의 구색은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재는 결코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의 권위를 헌법보다 더 높이 올려 놓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공산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 공산국가의 모든 기관이나 각종 사

\*3권분립: 국가권력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유지케 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 발생하기 쉬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 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임.

회단체 등은 다만 당의 지시와 결정을 집행하는 일만 맡아 볼 뿐이다. 결국 공산국가의 정부가 3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공산당이 내리는 지시와 명령을 나누어 수행하는 일종의 사무분담 체제이지,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이를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74년에 발간된 소련의 기관지 「프라우다」를 보면, 법무상이 모든 판사들에게 『판사들은 판결할 때 그 소송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밝혀서 피고나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의 재판이라는 것이 자유사회처럼 법률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하고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정치적 이용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 낸 하나의 증표라 할 것이다.

비록,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돌아가면서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거나, 주요 정부 기관 책임자나 그들의 대변자를 실제 자기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국가의 현실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유 민주 국가의 정권 기관은 대부분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구성된다. 즉 국민 각자가 직접·간접의 투표방법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 주장에 맞는 사람을 뽑아 정치를 맡기는 이른바 대의정치(代議

政治)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 위에 서 있다.

이와는 달리 공산국가에서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당은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국민이면 원하는 바에 따라 공산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공산당은 태어난 신분과 사회적 성분\*이 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자기들이 봐서 틀림없이 그들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이라 믿어지는 사람만 골라서 당에 가입시키므로 아무나 당원이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련의 전체인구는 2억7천여만명이나 공산당 당원 수는 1천7백여만명 밖에 안되고, 중공 인구가 10억을 넘어 섰으나 당원 수는 3천8백여만명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소련은 인구의 약 6.4%, 중공은 인구의 약 3.6%만이 공산당원인 셈이다. 아프카니스탄이나 라오스 같이 작은 나라는 이보다 더 적어 약 1% 내외에 불과하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공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공산당이 독재를 실시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한다. 그들은 공산당독재라는 말 대신에 ‘노동계급독재’란 말을 즐겨쓴다.

\*주권재민의 원칙 : 국가의 주권, 즉 대외적으로는 자주성·독립성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최고성·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권리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임.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이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있음.

\*성분 :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또는 사회경제적 처지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라는 것이 있다 함. 출신성분은 조상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를, 사회성분은 본인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데, 이 두가지가 주민들의 정치적 신임도를 결정하고 있음.

그러니까 공산국가는 ‘노동계급’ 전체가 주권을 갖고 독재를 하는 나라라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각 공산국가의 공산당원 수

국 가 명	총 인 구	공산당원 수	단위 : 1,000명	
			비율 (%)	
소 련	269,876	17,193	6.4	
중 공	1,055,304	38,000	3.6	
폴 란 드	36,229	3,040	8.4	
루 마 니 아	22,510	3,003	13.3	
동 독	16,738	2,130	12.7	
유 고	22,689	2,006	8.8	
북 한	20,586	2,000	9.7	
베 트 남	56,430	1,533	2.7	
체 코	15,369	1,532	9.9	
불 가 리 아	9,153	821	8.9	
쿠 바	9,903	434	4.4	
알 바 니 아	2,921	101	3.5	
항 가 리	1,084	81	7.4	
몽 고	1,812	67	3.7	
아프카니스탄	15,328	50	0.3	
라 오 스	3,994	15	0.4	
합계 (16개국)	1,599,926	72,008	4.5	

출처 : The New Book of World Rankings, 1984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산국가에서는 평균해서 전 주민의 5%도 안되는 극히 적은 사람만이 공산당원이 되어 있고, 또 공산당만이 최고권력 기관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은 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만 하도록 되어 있는 형편에 어떻게 감히 노동계급 전체가 주인 노릇을 하는 나라라고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 100% 투표 100% 찬성하는 엉터리 선거

공산국가들은 마치 그들도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선거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즉 이들 국가 대부분이 ‘인민’들이 선거로 자기들의 대표를 뽑게하고, 이 대표들이 행정부의 책임자를 뽑게하는 형식상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보면, 민주국가의 방식과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민주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며 일종의 속임수임을 곧 알아차릴 수가 있다.

첫째, 민주국가에서는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데 반해,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원만이 실질적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더구나 입후보자 추천 권한이 있는 공산당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만을 지명하여 내세우므로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있을 수 없다. 더러는 사회단체에도 추천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단체의 핵심요원 대부분이 공산당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둘째, 단 한사람의 후보를 내놓고 투표를 하더라도 반대할 자유만 있다면 문제는 다른데, 공산사회에서는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각종 선거에 있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모든 투표자가 공개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숙청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누구도 반대표표를 감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

다고 마음대로 기권할 수도 없다. 따라서 투표권자는 오로지 당이 뜻하는 바에 따라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공산사회에서의 선거는 항상 만장일치로 끝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100% 투표에 100% 찬성'이란 그들의 신문 보도는 거짓 말임에 틀림없다. 세상에 아무리 공산사회라 해도 투표하는 날 중병에 걸려 누워 있거나 또는 나이 많은 노인, 막 어린 아기를 해산하는 부인 등,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정으로 투표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계로들 자들은 단결하라!

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체 사 상 으 로  
른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평壤市 144 제12786호 1982년 3월 2일 (목요일)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  
지 침 으 로 삼 고  
우 리 의 혁 명 주  
더 욱 강 화 발 전 시 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투표에 참가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찬성투표

제 181호덕전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진행  
중 앙 선 거 위 원 회 보 도

이후보자의후보자 표시인민회의 제7기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는 1982년 2월 28일에 인민회의 제181호덕전선거구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이후보자의후보자 표시인민회의대의원후보자표 붙이 주민들 크나큰 열광을 지닌 제181호덕전선거구 전체

100%투표, 100% 찬성의 북한신문 보도

\*북한의 선거제도 : 입후보자는 어느 지역에서나 한명이며, 찬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는 사람만 기표장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X표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러면 공산국가에서는 왜 이처럼 하나마나한 선거 놀음을 때마다 반복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그들 공산국가에도 주민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있는 것처럼 내외에 선전하고, 둘째로는 공산당이 제시한 정책노선이나 독재적인 지도자가 전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양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산당인가?

공산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을 주무르고 갖가지 특권과 혜택을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공산당이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일에 앞장 서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공산당만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며 노동자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는 노동계급의 '전위당'(前衛党)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공산당은 노동자들의 모든 고민, 모든 슬픔, 모든 기쁨과 모든 기대를 대변하며,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곧 공산당이 원하는 것이고, 공산당이 원하는 것이 곧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그저 공산당에게 충성만 바치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각종 선거를 치루는 경우만 보아도 공산당이 단일후보

\*전위당 : 전위란 원래 주력부대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앞장 서는 전투집단을 가리키나,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에서 앞장 서서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방향을 정하며, 계급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소수의 혁명가들이 모인 집단, 즉 공산당을 이렇게 부름.

를 추천하는 것은 공산당이 ‘인민’이 원하는 인물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 그 희망과 기대에 딱 들어맞는 후보자를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 절대 잘못 판단하거나 일을 그릇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이므로 당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인민은 오로지 이에 복종하고, 뒤따르면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같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바 당이란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도맡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는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인데, 제3자인 공산당이 당사자보다 더 잘 알아 그 뜻을 대변한다거나,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각기 다른 인민을 대신하여 행복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일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볼 때, 공산당이 모든 근로자의 고민이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다는 ‘전위당’ 이론은 그들의 독재에 시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명분을 그럴듯하게 분칠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거의 모든 공산국가의 헌법들에는 허울 좋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하나같이 열거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알아서 대신해 주는 공산당을 오로지 잘 따르고 절대 복종하는 범위 안에서만 용납되는 완전히 변질된 공산당식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는 바로 이와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어거지 주장 아래서 공산 사회의 대부분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빼앗기고 인간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마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공산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회단체들

공산국가에도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단체나 정당들이 있어서 모임도 가지고, 내외에 성명서도 발표하며 때에 따라 회의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공산당의 지도와 통제속에 움직이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들이다.

공산국가의 모든 근로자는 전국에 걸쳐 조직되어 있는 ‘직업동맹’\*에, 농민은 ‘농민동맹’\*에; 여성은 ‘여성동맹’\*에, 청년은 ‘청

\*직업동맹: 노동자, 사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 하나, 사실은 주민의 감시 통제 및 능률적인 노력동원을 위한 공산당의 산하단체임. 북한의 경우 ‘조선직업 총동맹’이라 하여 모든 노동자와 사무부문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동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농민동맹: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라 하나 그 임무는 직업동맹과 똑같음. 북한의 경우 ‘농업근로자동맹’을 두고 협동농장원 및 농업과 관련있는 부문의 종사자들을 망라하여 무조건 가입토록 하고 있음. 우리의 ‘농업협동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년동맹'\*에, 소년은 '소년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단체들은 공산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이른바 '인전대'\*적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해 공산당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대중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단체나 모임처럼 각자의 설립 목적에 따라 각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종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당(政黨)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원래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의 독재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한다는 공산당(그 이름이야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음)이외에 다른 정당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 이외에 몇개 정당이 따

\*여성동맹 : 부녀자들을 노동에 끌어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조직한 것임. 북한의 경우 '조선민주여성동맹'을 만들어 전 부녀자들을 가입케 하고 여성들을 혁명화하며 어린이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기르도록 임무를 주고 있음. 우리의 각종 여성단체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

\*청년동맹 : 모든 청년들을 공산주의 진선에 앞장서도록 만들고, 공산당에 충성을 바치며 모든 정책을 앞장서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청년단체임. 북한의 경우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이라 하여 만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학생포함)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사상을 무장시키고 노동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

\*소년동맹 :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공산당을 무조건 따르는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학생들의 학교 내외활동을 모두 관장하는 한편, 심지어는 노력동원과 군사훈련에 이용하기까지 함. 북한의 소년단은 만9세부터 고등학교2년까지 입단시키고 있으며, '흙집나르기' 등 중노동에까지 끌어내고 있음. 우리의 '보이스카우트'와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름.

\*인전대(引傳帶) : 바퀴와 바퀴 사이에 벨트를 걸어서 회전시켜 그 위에 각종 물품을 올려놓아 연속적으로 운반시키는 '콘베이어 벨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

로 있는 것처럼 들러리 정당을 만들고 갖가지 간판을 내걸어 놓고 있다. 이들 들러리 정당들은 이름만 있을 뿐 대부분 하부조직이나 당원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공산당이 파견한 간부 몇 사람이 공산당의 시녀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지시에 따라 무슨 성명을 발표하거나 경축 식전에서 앞자리를 메꾸는 하나의 장식물로 쓰여지고 있을 뿐, 전혀 독자적인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 한사람 손아귀에 모든 것이 쥐어져 있고 우상처럼 떠 받들게 하는 사회

### 1인 독재체제

공산국가는 공산당이란 하나의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1당 독재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산국가에서 일단 유일 독재당인 공산당의 당원만 되고 보면 모두가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인가?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당원이라 해서 다같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들러리 정당: 우당(友黨)이라고도 함.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공산당 하나 밖에 없으나 대내외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름만의 정당임. 북한의 경우, 노동당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간부로 앉아 노동당 정책을 지지하는 들러리 정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등이 있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의 당 중앙위원\*들에 불과하다. 공산당의 중앙위원이란 것은 소련이나 중공같은 큰 나라의 경우에는 3백명 안팎이고, 작은 나라의 경우는 50명 안팎이다.

북한의 경우, 현재 140여명이다. 이 중앙위원들은 일반 당원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특권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당 중앙위원 회의에서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발언만 할 수 있을 뿐 결정권은 없다. 실질적인 결정권은 이 중앙위원회 안에 있는 정치국원\*들에게 있다.

정치국원은 큰 나라의 경우 20명 안팎이고, 작은 나라는 5명 내지 7명 정도인데, 북한은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다. 이 정치국 안에는 또 몇 명의 상임정치국원이라는 것이 있다.

결국 이 상임정치국원들이 공산당과 국가기관에 있어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자들이다. 마치 양과처럼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야 공산당의 핵심이 나타난다.

그런데, 절대적인 권력이 이같이 불과 몇사람 손에 쥐어지도록 되어 있는 공산국가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똑같은 권력을 나눠 가지고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어떤 일에 의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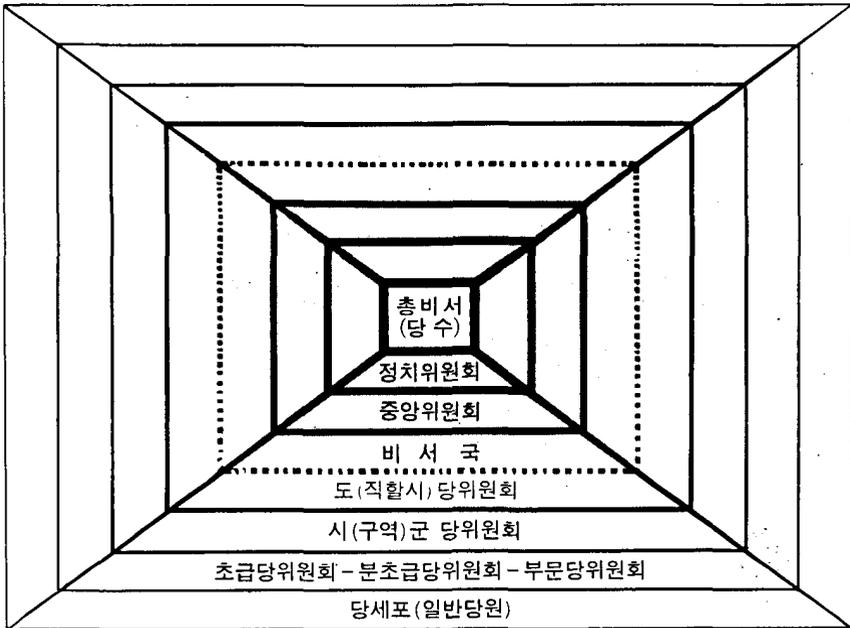
\*중앙위원 : 형식적으로 당의 최고기관인 당 대회와 차기 당 대회 사이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정치국과 비서국을 조직하며 정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북한의 당 중앙위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토록 되어 있음.

\*정치국원 :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사실상의 최고 핵심요원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상임위원(상임정치국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례임. 북한의 경우, 「정치위원」이라 부르며 1개월에 1회이상 소집토록 되어 있음.

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 중의 누군가 한 사람에게게로 권력이 집중되게 되어 있으며, 권력을 한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한 권력투쟁이 계속되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마지막 승리한 자가 독재자로 등장한다. 바로 그가 공산당에서의 당수인 것이다. 공산당에서는 당수를 ‘서기장’, ‘주석’, ‘책임비서’ 총비서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다 같은 말이다.

\* 북한의 당조직 도표



공산국가에서는 일단 공산당의 당수가 되면 모든 권력이 그 한사람에 집중되도록 제도적으로 짜여진다. 공산당의 조직을 보면, 당수의 지명으로 상임정치국원이 결정되고, 이 상임정치국원의 추천

으로 정치국원이 결정되며, 또 정치국원의 추천으로 중앙위원이 결정되어 그들에 의해 전당대회(全党大會)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공산당의 조직은 철저히 아래로 내리닫이식으로 짜여져 있다. 당의 각급 기관에서의 결의라고 하는 것도 상급 기관에서 미리 정한 내용을 놓고 박수를 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절차이지, 이것을 반대하거나 싫다 좋다 의견을 나누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직의 꼭대기에 당수가 앉아 있으니 결국 공산당의 독재란 것은 필연적으로 당수 개인의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국가란 ‘노동계급 독재’라는 이름 아래 공산당이 독재하며, 공산당 독재란 이름 아래 결국은 1인이 독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라 하겠다.



## 개인 우상화와 피의 숙청

공산당의 당수 한사람이 권력을 다 틀어쥐게 되어 있는 공산국가에서는 반드시 두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하나가 독재자인 당수에 대한 우상화요, 다른 하나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피의 숙청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처럼 대다수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얻어서 나라의 통치권을 떠맡게 되는 지도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해준 국민, 그리고 올바른 비판을 보내고 뜻을 같이해 주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박수를 많이 받는 훌륭한 정치를 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산체제하의 당수는 애초부터 국민의 지지는 커녕 당원들의 신임까지도 묻는 일이 없이, 오로지 치열한 권력투쟁의 결과 최고 권력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인자가 된 후에도 항상 긴장과 불안감 속에 빠져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데만 열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의 독재자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국민들에게 무조건 받아드리도록 강요하는 자신의 우상화(偶像化)작업이다.

이 이상화 작업의 첫걸음은 대부분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있지도 않는 자신의 과거를 만들어 내고, 역사적 사실을 뒤바꿔 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마침내는 자신을 하나의 살아 있는 우상이나 신의 존재로 까지 떠받들도록 강요한다.

예컨대,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을 ‘위대한 애국자’, ‘불세출의 영웅’, ‘뛰어난 혁명가’, ‘백절불굴의 투사’, ‘탁월한 군사전략가’ 등으로 둔갑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곳곳에 동상을 세워 주민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절대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해보겠다는 자들의 아침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독재자의 이상화 놀음은 더욱 그도를 더해 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단하나의 지도자는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신(神)과도 같이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떠받들어지고 잘못하는 일이란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살아 있는 신, 내지는 우상으로 되어 버린다.

그러나 독재권력을 오래 유지하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 자리를 넘보려 할지 모르며, 언제 국민들이 실망하여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독재자는 자신의 이상화와 더불어 무자비한 피의 숙청과 탄압 수단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공산사회에서 출세를 하려면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무엇이든

당의 지시에 앞장서 상급 기관에 곱게 보여야만 한다.

권력을 잡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든 각 기관의 요소 요소에 자기 말을 잘 듣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갖다 얹혀 놓아야만 안심이 된다. 일단 자리에 얹혀 놓은 자라도 조금이라도 눈치가 이상하면 미리 멀리 내쫓아 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려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를 중심으로 한 숙청은 계속되기 마련이다.

또한 일반 당원이나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수의 직계 세력이 되어 좀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한 경쟁과 좀 더 윗 자리에 올라가려는 살벌한 암투가 벌어지게 된다. 공산체제하에서는 권력기관의 요원(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함)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출세와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없다.

출세하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별의별 음흉한 수단을 다 부릴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피나는 싸움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 권력에 오르려는 자는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남을 짓밟으려 하고 권력을 잡은 자는 이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는 언제나 음모와 숙청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산국가에서의 독재자는 항상 불안하고 바쁘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만든 신의 탈을 쓰고 앉아 주민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충성을 강요하기에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독재자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숙청을 계속하느라 편안한 날이 없는 것이다.

## 우상화와 숙청의 사례

그러면 여기서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1인독재를 위한 우상화와 피의 숙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최초의 공산국가로서 공산독재는 반드시 우상화와 피의 숙청이 따른다는 사실을 실례로 증명한 소련의 경우를 보자.

1924년 레닌이 죽었을 당시 당 중앙위원이었던 스탈린\*은 레닌이 죽자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선배 정치국원을 제치고 소련 공산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서기장직을 차지했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침략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당내 반대세력과 소련 내부의 양심과 식견이 있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그는 또한 갖은 음모와 잔인한 방법으로 당수가 되고 혼자서 독판을 치다보니 괜히 남을 의심하고 남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아 피의 숙청에 숙청을 거듭하였다. 이 시대에 독재자 스탈린의 광란에 희생된 숫자는 무려 2천만명에 이르는



\*스탈린 : 1879년에 출생. 레닌을 따라다니며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 하였음. 1924년 레닌이 죽자 반대파를 제압하고 권좌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숭배를 조장, 1인독재체제를 굳혔음. 1953년 그가 죽은 후 당내의 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크게 비판을 받음.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세워 북한의 공산화를 조종한 인물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자기의 주치의와 비밀경찰의 두목마저도 숙청해 버렸다.

이렇게 되니 민심은 공포에 떨 나머지 그로부터 떠나기 시작하였다. 떨어져 나가는 민심을 다시 잡아보려는 욕심에서 그는 자신을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신처럼 높이 단상에 올려놓고, 받들어 모시도록 하는 개인우상화 놀음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사람의 정신상태와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갖가지 세뇌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을 초인적인 존재로 받들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1953년 그가 죽자, 그의 부하중의 하나였던 후르시초프\*가 주동이 되어 그를 하루 아침에 신의 자리에서 깎아 내리고, 그의 생전 업적을 맹렬히 비난하는 이른바 ‘스탈린 격하운동’이 전개되

공산 독재자의  
말로를 단적으  
로 나타내주는  
장면으로 독재  
자 스탈린이 죽  
은 후 그의 동  
상이 파괴되어  
거리로 끌려다  
니고 있다.



었다.

이것이 공산독재자가 항상 걸어가야 하는 마지막 길이요, 무자비한 권력 투쟁의 결말임을 보여주는 산 역사이다.

다음에 중공의 경우는 어떠한가?

2차대전이 끝난 후 중국대륙에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공산 정권을 세운 모택동이 1976년 죽기 전까지 생전에 저지른 피의 숙청으로 희생된 숫자는 너무나 많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이른바 ‘문화대혁명’\*기간 중에 그가 벌려 놓은 미친듯한 살인폭력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긴 수는 지금까지도 그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택동 역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동안에는 『중국인민의 어버이이자 스승이며, 중국 역사의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창시자』로

\*세뇌방법 : 공산주의에서의 사상개조 작업을 위한 갖가지 교육과 선전선동의 수단을 말함.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주민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자극, 구호사용, 인민재판 등의 수단을 씀. 특히 청소년 사상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후르시초프 : 1894년 출생. 1918년 공산당에 입당함. 스탈린이 사망한 후 권력투쟁을 통해 1958년 수상에 취임하였으나, 1964년 모든 직책에서 사퇴함. 1956년 스탈린의 개인숭배사상을 혹독하게 비판하였으며, 서방세계와 ‘평화공존’을 구호로 내세워 세상을 놀라게 함. 중·소분쟁 및 동구권 자유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의 장본인이며 1971년에 사망함.

\*문화대혁명 : 1965년 본격화하여 1969년 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 대회에서 일단락된 중공의 권력쟁탈을 위한 난동임. 모택동노선 확립을 이유로 ‘홍위병’을 동원하여 폭력투쟁을 일으키고, 당내 실권파를 몰아내었음. 군간부의 대폭 진출 및 4년동안 전국에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일으켰음. 공산주의자들이 실권을 갖기 위해 대중까지 이용하여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타도한 좋은 실례임.

떠받들려졌으나, 그가 죽자마자 그를 따르던 그의 처 강청(江靑)을 비롯한 이른바 모택동 세력들이 모두 잡혀 재판을 받았다. 또 생전에 하늘처럼 떠받들려지던 그의 어록(語錄)과 정책노선들은 하나 같이 무시되고 비판받는 처량한 운명에 처해 있음은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바와 같다.

더우기 북한은 다른 공산국가까지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철저하고도 노골적인 숙청과 우상화작업이 진행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 공산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과거나 별다른 투쟁 경력도 없이 소련군의 앞잡이로 갑작스럽게 독재자의 자리를 차지 하게 되었으니, 우상화작업과 숙청이 더욱 더 필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우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할아버지로 부터 아내에 이르는 그의 가계(家系)전체를 ‘인민의 우상’으로 떠받들도록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김정일\*에 그의 절대권력을 물려주려는 세습 책동(世襲策動)은 이미 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김일성은 다른 공산국가의 집권자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던 것들을 서슴치 않았다. 자기의 선조대를 거슬러 올라가 증조부까지 모두 투철한 애국자, 혁명가로 만드는가 하면, 자신은 『솔방울로 총

\*김정일(金正日) : 1942년 소련에서 김일성과 그의 전처 김정숙사이에서 태어났음.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당내요직을 두루 거쳐 1973년 후계자로 결정되었으며, 1980년 10월 당대회에서 실질적인 제2인자 및 김일성 후계자로 부각되었음.

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든다』는 등의 웃지 못할 신화까지 조작하고 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기위해, 그리고 권력을 쥔 뒤에는 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하여 온 숙청의 역사는 한마디로 피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비위에 조금이나마 거슬리거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수십년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이른바 ‘항일 빨치산 동지’라는 자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처형해 버리고, 걸



김일성에 대한 개인 우상화는 공산독재자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극치에 달한다.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 있는 김일성의 동상이 높이 4미터 이상 되는것만 해도 무려 500개가 넘고, 평양의 만경대에는 김일성 생가라는 것을 조작해 놓고 이것을 마치 일본의 ‘신사’나 아랍사람들의 ‘모스크’같이 성역화하여 북한의 주민은 물론 심지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까지도 강제로 참배시키고 있다.

핏하면 ‘반혁명분자’로 몰아 아오지탄광으로 유배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이란 것에 수용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공산국가들의 독재를 위한 이상화와 숙청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한 독재자가 권력을 자기 개인 소유물처럼 독점하면서 오래 휘두르게 되면 그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로 썩게 마련인 것이며, 독재는 결국 국민의 자발적인 의욕과 창의성을 극도로 고갈시키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믿고 따르지 않는 개인우상화는 아무리 강요한다 하여도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하루 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기 마련이란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획하는 사회

### 내 것을 가질 수 없는 사회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특별독재대상구역 : 북한 공산집단이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상범들을 주로 가두어 두는 곳. 현재 북한에는 8개 지역에 약 10만 5천명 이상이 강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생산 수단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생산 수단을 갖게 되면 이것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게 되어 세상이 불공평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하여 가지게 되면 국민들은 모두 무산계급이 되므로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말이야 그럴듯 하지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공산국가에서는 거의가 갓난 아이 때부터 집단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탁아소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탁아소에서 같이 노는 어린애들이 서로 다투고 때를 쓰는 경우를 살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게 된다. 싸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난감을 서로 빼으려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장난감을 주면서 같이 놀자고 하면 서로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빼앗고 안빼앗기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것도 싫증이 나면 버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아웅다웅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자기 것을 갖고 싶고 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타고 난 본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인간적 본능마저도 억지로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꿈과 희망이 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 공무원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는 꿈, 사업가가 되어 돈을 많이 벌려는 꿈, 훌륭한 기술자가 되거나 발명가가 되어 보려는 꿈 등 여러가지의 꿈을 가지고 산다. 이 꿈과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남보다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오직 자기의 꿈과 노력에 달려 있다.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산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틀어쥐고 있으니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구멍가게나 조그마한 공장도 모두가 국영으로 하고 있고, 농토도 개인이 가질 수 없다. 모든 주민은 오직 자신의 노동을 팔아 먹고사는 임금노동자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들은 우리처럼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다.

이같이 내 것을 가질 수 없는 공산사회, 꿈과 희망이 없는 공산사회를 과연 누가 바랄 것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가 대신에 국가에 의한 새로운 착취가 이루어지고 놀고 먹는 공산당원이 새로운 귀족계급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 대신에 국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일터를 더 늘려나간다고 하지만, 자본가가 돈을 벌면 그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사업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국가라고 해서 착취가 없고, 개인이라고 해서 착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공산국가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으므로,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평생 품삯을 받는 노동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각자가 자기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노력하고 경쟁하여 성공도 하고 자기 사업도 벌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아이디어’의 시대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 한푼없이 발명품이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어 성공한 사례도 얼마나 많은가?

그런가하면, 만석을 능히 추수하던 대지주의 아들이 흥청망청 놀고 지내다가 거지 신세가 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는 언제까지나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공산당의 주장은 네것 내 것이 따로 없는 사회가 되어야만 평등해지고 착취가 없어진다는 선동으로 선량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폭력혁명에 앞장 세우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사유재산제도가 과연 인류의 적인가?

그러면 과연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사회의 모든 죄악이 사유재산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모든 재산을 각 개인이 소유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로 해야만 사회는 악덕과 불행이 없어지고 자유와 행복과 풍요한 생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점을 좀 더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느 사회에서도 인간이 공동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한 인간이 떳떳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립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자립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도 생존하고 발전 할 수 있는 자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은 국민 개개인의 자립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립과 자기 책임의 원천이 바로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된다. 자기의 생존이 보장 안되는 데서 어떻게 개인적인 독립과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겠는가?

우리는 인류역사에 있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유도 그만큼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익히 알

고 있다. 만일 일의 결과가 네것 내 것이 따로 없는 것이라면, 어느 사람이 일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결국 사유재산제도는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건이며 인류의 번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유재산제도가 인류의 적이라고 외쳐대며 이를 부정해 버린 공산주의 나라들은 낙원이 되었으며, 또 그들의 말대로 공평한 사회가 실현되었는가?

사유재산이 없고보니 주민들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잃어버린 채 나라에 매달려 살 수 밖에 없다. 한편, 자신의 꿈과 의지를 빼앗긴 나머지 그저 노예처럼 맹종하고 틀에 박힌 생활만 반복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공평한 사회생활도 싹틀 여지가 없다. 물론, 재산이 많고 적은데 따라 사람들의 권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사유재산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당하고 배급을 타먹기 위해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공산주의자들이 오직 사유재산제도만 바꾸어 놓으면 인간사회의 모든 악덕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하고 어진 면과 더불어 악하고 의롭지 않는 일에 몰들 수 있는 면도 같이 깃들여 있다.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 온 갖가지 사악한 것, 피흘리는 폭력투쟁, 탐욕 등은 사회제도에서 보다도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악의 요소때문에 생겨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공산당들은 제도를 바꾼 후에 계몽이나 교육을 통한 세뇌공작으로 인간성을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개조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본성까지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도로의 개설을 가로 막고 있는 도시 개발지역의 욕심많은 지주의 횡포라든지,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벌수 있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현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공익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의 무한정한 추구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금이란 형태로 부자들의 초과수익을 걷어들여 가난한 자에게 되돌려 주는 재분배 정책들을 강력히 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가지는 제도상의 결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회제도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여 결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딘가에는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편리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

익해서 일단 채택되면, 그것이 초래하는 나쁜 결과는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쳐나가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송두리 채 이것을 뒤엎어 버리면 어찌자는 것인가?

과연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이 없고,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살아보겠다는 이기심이 없는 인간사회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으며, 설령 그러한 천당 같은 세상이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속에 살고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아야 어느 하나 내 물건으로 만들 수 없고, 결과적으론 나에게 별로 보탬이 될 수도 없는 일에 모두가 앞장서 열심히 일하러 들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 내 것을 가질 수 없는 사회는 왜 발전하지 못하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산국가에서는 대체로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또는 집단의 소유가 되며, 개인적 소유는 개인의 소비품에 한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호미자루까지 생산수단이라고 해서 국유화하고 수저와 밥그릇, 이부자리, 옷가지 등만 개인 소유로 인정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서는 60년대 초에 와서 이같은 국유화정책을 일부 완화해서 주로 농촌에서 개인 텃밭\*경작을 허용(땅을 빌려주는 형식으로)하게 되었다. 이같이 텃밭을 인정하게 된 것은 배추, 무우 등 김치거

\*텃밭 : 북한에서 채소 등 부식물의 해결수단으로 빌려주는 집주변의 짜투리 땅. 1가구당 보통 20~30평씩 제한하여 극히 소수의 주민들에게 경작만 허용함.

리까지 전부 배급제를 하다보니 제 때에 채소를 공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출이 적어 충분히 배급물량을 확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터밭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채소를 심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 중 일부를 국가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한 농사지역 안의 집들레에는 터밭이 있고, 한 길 건너 ‘협동농장’\*에는 채소전이 있기 마련인데, 터밭의 채소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데 협동농장의 채소전은 벌레가 끊고, 진딧물이 붙어 누렇게 잎이 변해 버리고 보잘 것 없어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농민들이 터밭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키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기름을 주며, 벌레를 잡아내서 심심하게 자라나게 하는데, 협동농장의 채소전은 그저 노력동원에 나가서 시간이나 때우고 벌레를 봐도 못본 채 하고 가꾸게 되니 채소가 못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관한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소련의 실례로써, 소련에서는 농토를 국유화 하거나 협동농장화 하고 남은 짜투리 땅이나 터밭 등 총면적의 약 2%정도를 개인이 농사지을 수 있는 사영경지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영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소련 전

\*협동농장 : 북한은 토지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농장’과 집단으로 일율시키는 ‘협동농장’이 있음. 이는 소련의 ‘소포즈’(국영농장), ‘콜호즈’(집단농장)의 본을 딴 것으로 농업집단화를 피하여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

체 생산량의 27%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급농산물의 경우는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 소련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47%, 우유와 고기의 34%, 감자의 62%가 모두 이 개인이 경작하는 농경지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공산국가의 협동농장이나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하나같이 개인의 터밭에서 생산되는 그것보다 질이 훨씬 낮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형편없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종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공삼품도 그 품질이 형편없으며, 같은 시간에 노동자 1명당 생산해 내는 평균 생산량은 자본주의국가 노동자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는 것이 오늘날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이같은 공산국가의 경제현실을 한마디로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체르넨코\*의 당 정치국에서의 연설 내용이다. 그는 『소련의 전체 트럭 중 3분의 1이 고장으로 멈춰 서있고, 여름신발을 가까스로 사 신을 수 있게 되면, 때는 벌써 겨울이 다가와 있다』\*고 지적



\*체르넨코 : 1911년 9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하여 1960년 당시 소련의 간부회의장인 브레즈네프의 개인 보좌관 격인 최고회의 간부회 서기국장을 지냄. 안드로포프 사망으로 1984년 2월 13일 소련 최고 우두머리인 당 서기장이 되었음.

\*1984. 11. 16일자 외신(로이타)보도 : 이와 관련하여 체르넨코는 소련경제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① 저질노동력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낙후 ② 소비재의 심각한 부족 등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산국가에서 생산활동이 오늘날 자기들의 우두머리조차 한탄할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남이 욕심내서 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물건만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밑질 장사를 누가 하며, 팔리지 않을 물건을 누가 만들겠는가?

그러나 공산사회는 그렇지 않다. 경쟁할 필요가 없고 국가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 내면 주민들은 싫든 좋든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국영상점에 내놓고 『살테면 사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다. 아쉬우면 사지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배짱이다. 사실 공산국가에서는 그나마도 필요한 물건이 부족하여 더욱 문제다.

예컨대, 신발을 생산할 경우, 1년에 1,000만 켤레(최소한의 공급량)가 필요하다면 각 공장에 생산량을 할당하여 1,000만 켤레만 만들도록 계획된 숫자를 명령으로 지시한다. 그 중 구두는 얼마, 작업화는 얼마, 운동화·고무신은 얼마해서 1,000만 켤레를 목표로 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지시를 받은 각 공장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처럼 서로 재료를 구입해다가 먼저 좋은 물건을 시장에다 내놓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료가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 노동자들은 일을 못하고 놀거나 딴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구두공장에서는 고무 밑창을 가져오면 가죽과 고무풀이 없고, 또 구두끈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가 보면 한달에 5~10일 정도는 훌쩍 지나게 되니 나머지 기간은 밤낮 가릴 것 없이 구두를 만들어 내야하고, 따라서 질은 생각지도 못하고 할당된 숫자만 채우기에 바쁘다. 이렇게 해서 겨우 생산목표량을 채우기는 하나 질이 엉망일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물건을 내 놓아 봐야 팔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공장은 일찌기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 개인기업이 없고 경쟁이 없으니 국영기업소에서 연간 소요량에 맞추어 생산해 내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신발이 헤어졌는데 맨발로야 다닐 수는 없지않은가? 아쉬운 사람이 사게 되어 있다. 이러니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상품이 생산될 수 있겠는가?



국영상점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스크바 시민들.

## 공산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

언제 어디서나 무슨 물건이든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 국영상점 앞에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 끝없이 늘어서 있는 주민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 이것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러면 이같은 공산주의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

서방세계의 경제학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는 세계를 공산화 하겠다는 야욕때문에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하고, 가장 낭비적인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나마 부족한 재원을 소비하고 있어 국민의 소비생활은 항상 뒤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면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공산국가들은 군사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민총생산액(GNP)에서 14%이상을 군사비에 쓸어넣고 있어 경제발전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

스탈린이 죽고 흐르시쵸프가 정권을 잡자 그는 자본주의 사회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서 ‘평화공존’을 내세운 적이 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와는 평화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흐르시쵸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에 대하여 충격을 받은 참모들은 “수상각하, 정말 자본주의와 전쟁을 포기하시는 겁니까?”라고 그에게 물었다 한다. 그러자 흐르시

췌프는 “천만의 말씀, 새우가 휘파람을 부는 한이 있더라도 자본주의와 전쟁은 포기할 수 없지”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새우는 죽을 때까지 휘파람을 불 수 없다』는 것은 소련의 속담이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건설의 목표를 이룬바 ‘국방·경제 병진 정책’\*\*수행에 두고 전쟁준비를 위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재원을 투입하여 왔다. ‘83년 현재 총예산의 24% 이상을 군사비에 충당하고 있는 북한경제 실정으로는 주민의 소비생활이 먼저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공산국가 모두에서 경제가 계속 침체에 빠져있고,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공산국가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경제가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완전한 통제경제체제로 되어 있어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는 모든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동

\*이를 ‘전쟁불가피론’이라고 함: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뺏기 위해 폭력이 필요하듯이 세계적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며 그것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함. 그들은 세계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면 비로소 전쟁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방·경제 병진정책: 북한은 경제정책에서 중공업 우선을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힘써 왔음. 바로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소비재 산업이 등한 시되어 주민의 생활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으며 생활필수품까지 구하기 힘든 실정임.

적으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모든 생산물은 시장에 내놓아 팔리는데 따라 그 가격이 매겨지고, 그 생산량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그러나 공산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생산활동이나 소비는 모두 국가가 맡아서 사전에 계획하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령(명령)경제체제’\*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령경제체제 하에서는 중앙에 있는 행정관리가 책상 머리에 앉아 품목별로 생산량을 정하고, 각 공장 및 기업소별로 생산 목표량을 정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품의 가격도 그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원가와 관계 없이 매겨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국가경제의 관리가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서 복종하는 관료적인 체제하에 극히 비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유능한 경제관리라 할지라도 사무실에 앉아서 수천 수만이나 되는 물품의 소요량과 소요시기를 정확히 산출해 내고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산국가에서는 생산계획의 잘못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한편에서 썩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물건이 없어 찢찢매는 낭비와 비능률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지령경제체제: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어 중앙에서 생산 목표를 결정하면 각급 기업소에 그대로 목표량이 할당됨. 이와 같이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밀으로 무조건 내려먹이는 경제운영방식을 지령 또는 명령경제라함.

세제, 공산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이자 고민은 노동자, 농민의 생산의욕이 갈수록 떨어져 노동의 생산성이 말이 아닐 형편이란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국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에 고용된 날 품팔이 일꾼과 같은 처지에서 지시된 과업에 따라 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죽도록 일해봐야 임금이 더 오를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야 내 집이나 내 공장을 사고, 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열심히 일할 의욕이 날 턱이 없다. 그날 그날 자기 앞에 할당된 목표량(이것을 「노르마」라 한다)에 맞추어 적당히 숫자만 채우면 되니까 정성을 다할 리가 없고, 이렇게 생산되는 물건의 질이 좋을 리가 없다.

예를 들어 하루에 구두를 한 켤레 만들어라 하면, 한 켤레 만들기만 하면 되지 그 구두가 겨우 한달 쓰고 버릴 것인지, 1년을 신고도 남을만큼 튼튼한 것이 될 것인지는 애당초 관심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공산국가의 모든 생산품은 그 품질이 형편없게 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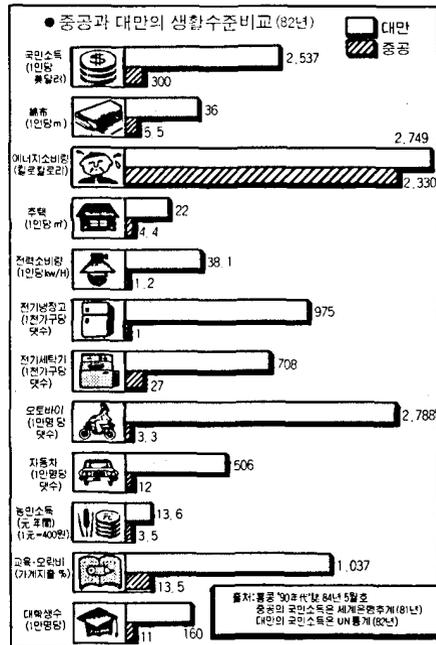
또 각종 기업소나 공장을 경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시된 생산량을 주어진 기간에 생산만 하면 책임을 면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가나 공장장처럼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 될 수 있는대로 원료를 아껴쓰고 생산방법을 꾸준히 개량하거나 새로

운 상품을 만들어 내 이윤을 높이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느 공장에서 아무리 생산실적을 올리고 이윤을 많이 내도 공산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는 이름 아래 그렇지 못한 공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월급이 돌아올 뿐이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이같이 노동자가 일터에서 애써 일하지 않으려 하고 모든 생산활동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되지 않아 그들의 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고 노동에 자진해서 참여하며, 창의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선동·선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노동에 열중하도록 인간의 마음과 정신만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공산주의식 독려 방법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독려하고 협박하여도 내 것이 아닌 일을 할 수 없이 하는 것과,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는 전혀 그질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또 백마디 말뿐인 칭찬보다는 월급을 한푼이라도 더 올려주는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이상과 같은 공산주의 경제의 실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서방측 기자들의 공산국가 방문기가 있다.

등소평\*이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부르짖고 중공의 공산경제를 개혁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크게 도입하기 시작한 후, 중공에서 볼 수 있는 근로자의 얼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어느 국영상점에서나 한결같이 볼 수 있는 무표정하고 짜증스러운 판매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자유화 조치 이후 등장한 ‘자유시장’에서 자기가 농사지은 채소 등 농산물을 팔고 있는 농부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와 일일이 야채를 포장해 주는 친절 한 모습으로서, 이 두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마치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두 얼굴을 대하는 것같이 크게 인상이 깊었다 한다.



\*등소평(鄧小平) : 1903년에 출생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중공정권 수립 후 당정치국상무위원 및 총서기 등 요직을 맡았었음.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실각하고 1973년 부수상으로 복권되었으나, 1976년 다시 ‘주자파(走資派)’로 공격을 받고 실각하였음. 1977년 부수상에 등용되어 현재 당 부주석직에 있으며, 실용주의 주창자로서 중공의 실권자임

\*실용주의노선 : 미국의 제임스 듀우이에 의해 처음 제창된 것으로,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지성에 의한 사회의 진보를 주장함. 미국의 번영을 가져온 미국정신의 대표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음. 중공에서는 최근 등소평이 실권을 잡으면서 사상보다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이 우선한다 하여 이와 같은 실리적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함.

## 변모하는 공산주의 경제

요즈음에 와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공산주의 경제의 제도적인 결함과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경제 운영방식이 가지는 병폐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만성적인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 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권의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은 가장 앞서가는 공산주의 국가답게 그들 경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 서고 있다.

소련에서는 벌써 20여년 전인 1960년 초에 이미 국영기업에 부분적으로 '이윤제도'의 도입을 인정하여 기간 중 초과이윤을 낸 기업소에게는 초과분만큼 종사원에게 추가로 분배해주고, 중앙계획당국의 일률적인 지시와 명령을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던 바, 이같은 조치가 점차 동구 공산권 여러나라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또 동구라과 공산국가의 하나인 유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유재산제도를 일부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공장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공장을 관리해 나가는 '공장자주관리제도'를 넓혀 나가는 등 자본주의적 경영관리 방식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윤제도: 리베르만(Libermann)방식이라고도 하며, 소련이 기업의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기업에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임. 기업별로 경영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고 이윤율을 높인 기업에는 상여금을 주어 떨어진 생산의욕을 높이자는 것임.

이같이 공산주의 경제가 변모해가고 있는 현상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등소평이 실용주의 노선을 부르짖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중공의 경제개혁 조치라 할 수 있다.

중공은 지난 84년 10월 2일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 ①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한다 ②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선진적인

경영관리 방법을 도입한다 ③ 국가기간사업이 아닌 일반부문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운용한다 ④ 분배에 있어 누구나가 같은 몫을 주는 ‘공산주의적 평등’을 없애고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몫이 돌아가도록 한다 ⑤ 공장 단위로 경제 책임제를 실시한다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적 경제원칙에서 보면 도저히 생각치도 못할 자본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한꺼번에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중공에 있어서는 ‘제2의 혁명’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경제제도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984. 10. 23일자 조선일보



이 뿐만 아니라 세계 공산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고집불통인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까지도 지난 84년 9월에 이른바 ‘합영법’이란 것을 발표함으로써, 자본주의국가와 협력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공산국가의 움직임들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적 경제제도와 운영방식으로는 도저히 경제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어찌 할 수 없이 것처럼 타도하자던 자본주의 제도의 장점을 빌려 쓸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속사정을 드러내 놓은 것이라 하겠다.

공산주의 경제가 이렇게 변해나가다 보면 끝내 어디까지 같것인가가 자못 궁금한 것이다.

## 집단화되고 격리된 전체주의 사회

이 밖에 공산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특징의 하나는 전 사회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른바 ‘집단주의 원칙’의 부르짖음 속에서 모든 주민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어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아래에 놓여 진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공산정권이 일부러 취해 온 밀폐정책으로 말미암아 사회전체가 안팎으로 격리되어 우물안의 개구리 신세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의 집단주의 사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든 것이 국가나 공산당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어 국가가 주민생활의 전부를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일할 직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살 집을 지어주어야 하며, 먹을 식량을 배급해 주어야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민이 국가나 당의 지시에 반항하지 않고 고분고분 따라 오도록 하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정신상태까지를 국가가 거머쥐고 항상 감시·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수천만이나 수억의 주민을 상대로 해야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모든 주민을 크고 작은 단체나 조직으로 묶어 놓고 다스리는 집단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통솔하기도 어려우니까 학년별로 또는 과외활동별로 반을 조직케 하고, 각 반의 대표로 반장을 뽑게하여 이들 반장을 상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손쉽게 처리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같이 모든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어 놓고 매사에 집단을 앞세우는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뜻하는 바나 주장이 제대로 세워지고 존중

떨리가 없다. 또 집단적인 통일을 기하려다 보니 모든 행동과 요구가 하나로 통일되고 같은 자로 재서 잘라 놓은 것처럼 단일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집단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좋다고 허락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집단주의 원칙’은 그들의 헌법(이른바 ‘사회주의 헌법’ 제49조)에서까지 명시되어 모든 행동을 지도하는 기초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교육에서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과 ‘집단주의 원칙의 관철’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적인 창의와 타고난 소질이 중심이 되는 연극, 무용, 가곡 등 공연예술과 소설, 희곡의 집필 등 창작활동에까지 집단성이 강조되어, 여러 사람이 소설하나를 나누어 집필케 한다거나 한개의 가곡을 두 사람 이상이 나누어 작곡케 하여, 이른바 무슨 무슨 ‘문화예술단의 집단 창작품’이라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따금 평양시가의 풍경을 촬영해 온 영화필름을 보면, 이중에 빨간 마후라를 단 제복을 똑같이 입은 북한의 소년단 아이들이 시가지를 마치 군대가 사열하는 것처럼 줄을 서서 일제히 발을 맞추어 노래를 합창하며 걸어가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같은 풍경에서 우리는 집단화된 북한사회의 실제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안팎으로 막혀 있는 폐쇄사회

공산주의 사회는 또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굳게 닫혀 있는 ‘철의 장막’\*이 쳐져 있는 사회이다. 안으로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역과 지역간에 자유로운 왕래가 막히고, 소식이 끊겨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밖으로는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남의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지 조차 모르는 가운데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공산사회의 주민들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 사회가 밖으로 열려 외국의 선진된 문물과 자유로운 생활상이 국내에 알려질 때에 빚어질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폭발이다. 소련은 공산혁명 후 지난 68년 동안에 노동자의 ‘지상낙원’을 건설했다고 큰 소리 쳐 오면서도 아직도 완전히 개방하여 외국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고 있다. 아무나 자유롭게 소련의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자기들 주민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나라 안팎의 돌아가는 소식이나 세상물정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보고 들으며,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이를 곧 알

\*철의 장막: 소련 진영의 공산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의 폐쇄성을 비유한 말. 영국의 처어칠이 1946년 3월국회 연설에서 처음 썼음. 중공이 자유국가에 대해 쌓아 놓은 장벽은 중국에 많은 대나무(竹)에다 비유하여 ‘죽의 장막’이라고도 부름.

수 있게 된다. 요즈음에 와서는 전파매체가 눈부시게 발달되어 세계 방방곡곡의 소식과 돌아가는 형편을 안방에 앉아서 즉시 즉시 듣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사회에서의 사정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공산국가 중에서 가장 자유스럽다는 소련에서조차 최근까지도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국내방송 밖에 들을 수 없도록 다이알을 고정시켜 놓고 있으며, 신문·잡지 등 모든 언론기관은 공산당 및 국가기관이 소유하여 외부의 정보가 흘러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음으로써 주민이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찌다 눈에 띠는 해외의 관광객들의 입을 통해서이다.

공산국가들은 이와같이 주민의 눈과 귀만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목까지 잡아 묶어 놓는다. 주민들은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나라안에서조차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없다. 뿐만아니라 마음대로 살고 싶은 지역을 골라 살림을 꾸릴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말하는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거나 나라에 따라서는 일체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군(郡)내를 벗어나는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고 여행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물론 개인적 목적이거나 관광을 위한 나라 밖 여행은 생각치도 못한다.

결론적으로 공산독재자들이 자기들 사회를 이같이 집단화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는 첫째, 공산당의 1당독재와 전체주의적 통제밑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도 남보다 훨씬 뒤떨어져 어려운

형편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점차 커져나가고 있는 요구조건들과 불평불만을 조직적인 감시와 집단적인 통제를 통하여 계속 억눌러 나가기 위한 것이고 둘째, 자기들 공산사회가 안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부끄러운 약점들을 외부 세계에 드러내 놓지 않기 위해서이며 셋째,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 측면까지를 정부가 한손에 거머쥐고 휘두르는 전체주의적 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 5

---

## 공산사회에서의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

- '새로운 계급'만이 땀땀거리며 산다
- 먹고 살기가 우선 급하다
- 정해 준 직장에서 일하고 배정해 준 집에서만 살아야 한다
- 감시와 통제 속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
- 생각대로 말하고 발표할 수도 없다
- 갖가지 노력 경쟁운동 속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
- 가정은 하나의 합숙소가 되었다
- 종교조차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
- 배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배울 수도 없다
- 자신의 뿌리와 나라의 역사도 모르며 산다



## 5

## 공산사회에서의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 ‘새로운 계급’만이 명명거리며 산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가장 자랑삼아 내세워 온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등’이란 단어가 될 것이다. 그들은 ‘계급없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약속하면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불평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공연히 사회로부터 자기가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완전한 평등사회를 실현하려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 유혹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공산사회의 주민들은 그들이 말한대로 계급적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때 유고슬라비아의 부통령을 지낸바 있는 밀로반 질라스\*라는 사람은 그가 쓴 「새로운 계급」이란 책에서 “오늘의 공산사회에서는 공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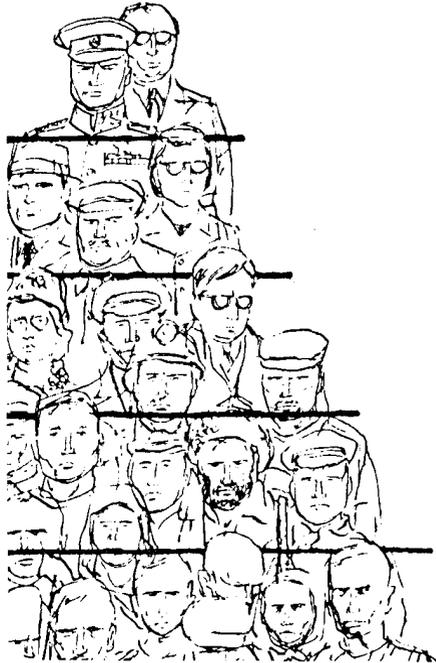
\*밀로반 질라스: 191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남. 티토와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부통령까지 되었으나 공산체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투옥됨. 1957년 「새로운 계급」이란 책을 옥중에서 발간하여 공산주의 사회내의 불평등을 폭로하였음.

원아란 새로운 지배층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여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말을 굳이 내세우지 않고서라도 오늘에 나타난 공산사회는 평등사회가 되기는 커녕 새로운 불평등이 날로 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권계층이 생겨나서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것 짚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비난해 온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대립과 차별 대신, 공산사회에는 공산당원과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간의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계

공산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계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소련의 경우 소수의 지배자 그룹에서부터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가난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보여준다. 그 중간에는 공산당의 시녀노릇을 하는 여러 계층이 있다.



급차별 못지 않게 커져가고 있다.

새로운 ‘공산귀족계급’으로 등장한 특권층은 월급에서나 식량배급, 물자공급, 주택사용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오늘의 공산사회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마음대로 살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왜냐하면 생산시설이 빈약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가게 앞에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나 소위 특권계층은 봉급 외에도 일반대중이 꿈에도 생각못하는 각종 현물급여를 받는다.

소련의 예에서 보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층이 되면 시골에는 커다란 별장을, 모스크바에는 호화판 맨션 아파트가 제공되며, 출퇴근시에는 리무진이라는 고급차가 준비되어 있다. 미용소나 이발소도 이들을 위해 특별히 차려져 있으며, 심지어 책 한권을 구입하는데도 특별대우를 받는다. 병원도 이들을 위한 특별병동을 따로 두고 있다. 마치 봉건왕조시대의 귀족계급처럼 그들이 말하는 바 주인인 노동자, 농민을 턱 끝으로 부리면서 갖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당원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고급당원인 것이다.

이렇듯 현대판 귀족계급이 된 공산사회의 공산당 특권층이 호화로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의 책임량 달성에 정신이 없는 노동자들한테 ‘노동자의 천국’, ‘계급없는 평등사회’를 건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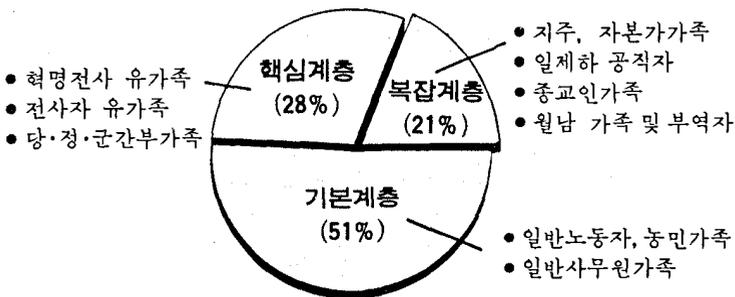
고 목청을 돋우고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계급없는 평등사회란 일부 공산당원을 뺀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평등사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북한에서도 이른바 ‘핵심계층’\*에 속하는 당원과 그 가족들은 공산정권으로부터 갖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어도 핵심계층에 속해야만 평양시내에 살 수 있고, ‘특별상점’에 드나들며 외국제 물건까지를 살 수 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먹고 살기가 우선 급하다

소련의 흐르시쵸프는 1958년 3월 스탈린에 이어 수상이 된 후 이렇게 큰소리로 약속한 바 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앞지를 날이 멀지 않았으며,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북한의 사회계층 구조



그러나 오늘날 소련 시민들은 흐르시췌프의 이같은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서방세계에 대하여 심한 열등의식에 젖어 있다고 한다. 쇠고기 1근, 버터 몇 파운드를 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긴 줄을 서서 몇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자기들 처지와, 식료품이 남아돌아 고양이 먹이까지 따로 만들어 팔고 있는 서구사회의 시민생활을 비교해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얼굴이 두껍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입에 맞는 음식 한가지 뜻대로 차릴 수 없는 식탁을 앞에 놓고, 모든 인민에 자유와 빵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계속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중공도 1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실용주의 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즉 “혁명구호가 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 미·소의 생활수준 비교 (1983)

내 용	미	소	비교
국민소득(1인당 \$)	14,120	6,765	2.09 : 1
전력소비량(1인당 Kw/H)	10,669	4,653	2.29 : 1
에너지소비량*(1인당 바렐)	55	32	1.72 : 1
식량생산량(1인당 1,000kg)	889	716	1.24 : 1
육류생산량(1인당 1,000kg)	107	59	1.81 : 1
자동차(1,000명당 대수)	538*	35**	15.37 : 1
전기세탁기(1,000명당 대수)	260	205	1.27 : 1
전기냉장고(1,000명당 대수)	349	268	1.30 : 1
전화*** (1,000명당 대수)	791	84	9.42 : 1
생활공간(평균 방1개에 대한 사람수)	0.6	1.3	0.46 : 1
대학생비율(25세 이상)	31.1%	7.2%	4.32 : 1
평균수명(세)	73	69	1.06 : 1

\* '82년 기준, \*\* '81년 기준, \*\*\* '79년 기준

출처 : The New Book of World Rankings, 1984;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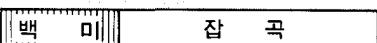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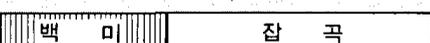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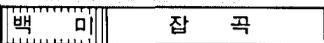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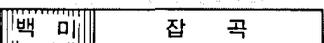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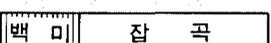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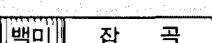
것이 등소평의 말이다.

북한을 두고 보자. 북한은 공산권내에서 가장 철저한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짜로 배급 주는 것이 아니라 배급 기준량을 정해 놓고 그 한도내에서 돈으로 사가게 하는 배급제이다.

식량배급은, 일반 근로자와 사무원의 경우 하루 600그램(현미 3, 잡곡 7의 비율)씩인데, 여기서 비축미(전쟁에 대비한 식량)명목으로 한달분에서 4일분을 공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당간부나 고급관리는 하루 700그램씩 백미만의 특별배급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특권층은 전용상점(10호 상점이라고도 함)을 두어 좋은 물건을 싼 값으로 구입하고 일부 외국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

	당·정권기관 간부		700g
	군인		700g
	중노동자 (광부·선원)		800g
	일반사무원 노동자		600g
	대학생		600g
	중고등학생		500g
	국민학생 피부양자 (고령, 불구자)		300~400g

그래서 북한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일반주민들 사이에는 식료품이나 기타 일용품이 간혹 암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가격은 배급가격의 10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비싸다.

고기도 배급제이고 심지어 소금, 된장, 간장까지도 배급제이기 때문에 자기 입 맛에 맞추어 무엇을 더 넣고 무엇을 덜 넣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오랫동안 우리 입 맛에 익어 온 된장찌개, 김치찌개인들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웬만해서는 참기름 맛을 모른다고 한다.

배급이 계급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수요에 따라 공급받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빈털털이 구호를 이제 누가 믿으려 들겠는가?

1982년 4월 14일 김일성은 노동당 중앙위원과 최고인민회의\*대의원합동회의 라는 데서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이상 야릇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다.

또 그는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이 쌀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쌀 독에서 인심이 난다』, 『쌀을 많이 공급해야 인민들이 노동할 의욕을 갖고 일에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형식상 입법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그 기능이 비슷함. 그러나 실제로는 당 정책을 그대로 떠 받드는 꼭두각시 역할만 하며, 대의원조차도 당의 지명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음.

그토록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해 가며 이룩하겠다는 ‘공산주의 천국’이란 것이 겨우 쌀밥이나 먹여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회라니 그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김일성의 이 말은 오늘날 북한 주민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스스로 폭로한 실례라 할 것이다.

그뿐이라, 70년대에 와서는 부녀자들을 가정일로부터 해방(실제로는 부녀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함) 시킨다는 명분으로 지역마다 ‘밥공장’\*, ‘찬공장’\*을 설치, ‘양권’을 미리 맡기면 밥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새벽에 일터에 나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주부들에게는 편리할 수도 있다.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밥공장** :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세운 밥만드는 공장으로 식량 또는 양권과 돈을 주어야 밥을 탈 수 있음.

직장에 나간 여성들이 밥할 시간이 없어 밥공장을 이용하나, 밥이 설고 타는 때가 많고 겨울에는 싸늘한 찬밥을 먹어야 하므로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음.

**\*찬공장** : 반찬을 만들어 파는 공장임. 북한에서는 찬거리도 구하기 힘들고, 하루노동에 바쁘고 해서 찬을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을 수도 없음. 어머니의 음식 솜씨대신 찬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반찬을 사먹고 있음.

그러나 그토록 가정주부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서도 온 가족끼리 단란하게 저녁식사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사회라면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사회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정해 준 직장에서 일하고 배정해 준 집에서만 살아야 한다

우리와 같은 자유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장래 설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에 맞는 직장을 골라 취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사회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장을 세워 경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상점을 차려 돈을 벌거나 변호사나 의사처럼 개인사무실이나 자신의 병원을 차려놓고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도 없다.

공산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학업을 마치면(대학이든 중등학교이든) 국가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직장이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나가 종사해야 한다. 배치된 직장이나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소질이나 희망하는 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마다하고 안나간다거나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산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가정해 본다면 여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이 거대한 기업에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을 소유한 악덕사장이 자기 회사의 사무원이나 공원을 회사의 이익을 내세워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기분나는대로 자리를 옮겨 놓듯, 공산사회에서는 오로지 하나뿐인 고용주인 국가가 사전에 정해 놓은 인력계획에 따라 사회 각분야에 인력을 배정하고, 공장과 농장 등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하여 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공산국가에서의 직장 배치인 것이다.

따라서 배치되는 개개인의 사정이나 개별적인 희망이 반영될 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한번 직장을 배치 받으면 대부분 평생을 당초 배치된 직업분야나 같은 직장에서 보내야 된다. 한번 직장을 배치해 주고 나면 그 후로는 개인적 입장은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고 자리를 옮겨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불평 끝에 해당 국가기관에 항의한다고 해서 마음에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다시 골라 배치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겉으로 보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사회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커다란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사실로도 공산사회에서는 실업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줄리 없고 또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가 되어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볼 점이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직장의 강제 배치와 실업자가

없는 공산사회라는 허울속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마음에도 없는 직장과 일터에 배치되어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또 공산사회에서는 이같이 직장이 강제 배치되기 때문에 주민이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자연 제한되기 마련이다. 공산사회에서는 직장에 나가면 시간에 너무나 쫓기고, 대부분 시내 교통편도 대단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직장과 함께 각자가 살아갈 집을 강제로 지정해 주고 있어, 우리처럼 직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며 출퇴근하거나 마음 내키는대로 시골이나 시내를 골라 자유롭게 옮겨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주민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살고 싶은대로 내집을 마련하여 가질 수 없다.

모든 주택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주민들은 다만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주택들을 각자가 소속된 사회 계층이나 당과 국가기관에서의 직위에 따라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북한의 경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은 없다. 직장 배치에 따라 시·군의 주택관리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배정받는데 거의가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택이고, 단독주택은 대부분 정부의 고관이나 고급 당간부들에게 배정된다. 일반 근로자나 사무원은 보통 방1, 부엌1, 마루방1가 있고, 변소는 공동변소를 이용해야 하는 집단주택이 주로 배정되는데, 주택의 크기는 가족수와 관계없이 직위나 직책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북한의 주택 배정 기준표

주택규격	집 구조	입주 자격
단독고급주택  특호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 정원, 목욕탕 ○ 냉온방장치 ○ 수세식변소	○ 당 및 정부원 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이상
신형고급아파트  4호	○ 방 2~3개 ○ 목욕탕, 수세식 변소 ○ 냉온수시설	○ 중앙당과장, 정무원 국장급이상 ○ 대학교수, 기업소 책임자
신형아파트  3호	○ 방 2개 ○ 부엌, 창고	○ 중앙기관지도원, 도급기관 부부장 이상, 기업소부장 ○ 교장, 대학교수
일반아파트  2호	○ 방 1~2개 ○ 마루방 1, 부엌 1 ○ 공동목욕탕	○ 도급기관지도원, 기업소 과장급, 시·군급기관 과장 ○ 교원, 노력유공자, 인민군대위
집단공영주택  1호	○ 방 1~2개, 부엌 1 ○ 방 2~3개의 기준 구역	○ 말단 노동자, 사무원 ○ 변두리 협농원
농촌문화주택  1호	○ 단층연립 ○ 방 2, 부엌 1 창고 1	○ 협동농장원

그나마 북한에 있어 주택은 항상 부족하여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을 하고도 주택을 결정받지 못해 이것이 배정될 때까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의 이동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동안은 직장합숙소에서 지내야 한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모든 주민에게 직장을 일일이 배치해주고, 주택을 배정\*해주는 외에 식량과 의복까지를 배급해주는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절대 필요한 의(衣), 식(食), 주(住) 세가지 조건 모두를

거머쥐고 마음대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기관이나 공산당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건들이는 일이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 것이다.

## 감시와 통제 속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

오늘의 공산사회가 여러모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대내외로 격리된 하나의 거대한 조직 사회라는 말은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다. 이웃과 지역간에 왕래가 끊기고 소식과 정보가 막혀버린 채 철저한 감시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공산사회이다.

공산국가는 그 어느 나라나 비밀경찰을 두고 있는데, 소련의 ‘게페우’\*라고 불리우고 있는 비밀경찰은 악명높은 기관으로 스탈린 이래 소련의 독재자들은 이것에 의지하며 믿고 독재정치를 강행해 왔던 것이다. 유명한 소련의 망명작가인 솔제니친은 소련의 강제수용소\*실태를 폭로한 그의 소설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밤중에 요란스럽게 울리는 초인종소리, 혹은 거칠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바로 건방지기 짝이 없고 포악한 비밀경찰요원들의 침입을 뜻한다.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당신은 공장 복도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 39도의 고열로 누워 있는 병실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러

\*게페우: 소련어로는 ‘카게베’란 약호로 불리움. 소련의 비밀경찰기구인 ‘국가정치보안부’의 약칭임. 이 기구는 정치적 적대계층에 대한 비밀재판, 투옥, 유형, 사형집행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음. 1934년 이후 이름만 여러가지로 바뀌었을 뿐, 1954년 ‘케이.지.비’(국가보안위원회)로 개편된 후에도 그 역할은 마찬가지임.

\*강제수용소: 공산주의 사회에서 소위 사상범이나 반대파들을 가두어 평생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곳. 솔제니친은 이것을 「수용소 군도」라고 이름지어 소련의 이곳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바 있음. 북한에서도 최근 「특별독재대상구역」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동물같이 살도록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나 이 때 의사는 당신의 체포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한다. 당신은 심지어 수술대 위에서 위암 수술을 받는 도중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은 간신히 살아 피투성이가 된채 감방으로 실려오거나 끝내 소식이 끊기고 만다」

이와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무조건 체포하여 감방에 집어 넣는다.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알아내고 그들에 불순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두고 있는 비밀경찰 조직으로 ‘국가정치보위부’\*가 있다. 정치보위부에서는 모든 서신, 전화를 검열하고 있으며, 세사람에 한사람 꼴로 꼬나불을 두어 모든 주민의 동태를 일일이 감시한다. 그것도 부족하여 노동당에서는 소위 ‘5호담당제’라 하여 한 사람의 열성당원이 다섯 가구를 책임지고 감시하며 사상동태를 일일이 파악한다.

심지어 어린이들(소년단원)에게도 ‘정탐활동’(소위 고자질하기)을 시켜 소년단장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집안 일을 낱낱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도 이웃도 직장의 동료도 모두가 감시원이고, 비밀경찰의 꼬나불로 봐야 하는 비극이 오늘의 북녘땅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믿고 살며, 비록 친구끼리라 하더

\*국가정치보위부 : 소련의 ‘게케우’를 본따 만든 북한의 정치사찰기구로 '75년 사회안전부에서 떨어져 나왔음. 김일성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에 구애받지 않고 갖은 악랄한 행위를 도맡아 하는 폭압적인 정부기관임.

라도 서로 어울려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무척 의심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으려 하지 않는 습성이 생긴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여 부모의 죄상이 드러나면 그 자식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몸서리칠 일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런 ‘영웅적 소년’의 모범을 따르라고 강조한다.

6.25직후 북한 공산집단은 각급 학교를 통한 정탐활동과 함께 학생들에게 고발을 권장하였다. 예컨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집에 가서 장롱 깊숙한 곳에 표지가 빨강거나 검정색으로 된 두껍고 가죽으로 싸여진 책이 있으면 가죽 몰래 학교로 가져오라 했던 때가 있었다. 이것은 집안에 숨겨 둔 성경과 찬송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 장롱 속이나 천장같은 데 이상한 것발이 숨겨져 있으면 찾아오라는 말도 있었다. 이것은 숨겨진 태극기를 찾아 내려는 것이었다. 또 집안 식구중에서 밥이나 음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뒤따라 가서, 장소를 확인하고 선생님에게 알리라 하였다. 이것은 6.25동란 때 반공활동을 하다가 피난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가족이거나 친척 또는 후퇴 못한 국군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처형되었던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잡혀가고 형이 잡혀가 총살되어도 그를 고발한 자식과 동생은 이른바 ‘공산주의적 도덕’을 몸으로 실천한 ‘영웅’으로 떠받들어 진다.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는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모든 주민은 어떤 단체이든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 단체생활을 해야하며 단체를 마음대로 탈퇴할 수도 없다. 단체생활은 곧 모든 주민을 조직 속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쉬는 날은 각급 단체에서 모임을 가지고 무슨 쫓기대회이니, 봉사활동이니 해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감시와 조직속에 살다보니 북한의 주민들은 어디를 가나 증명서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0세가 된 아주머니가 시골에서 평양의 아들집에 간다고 하자. 이 아주머니는 우선 챙겨야 할 증명서가 있다. ①공민증 ②여성동맹 맹원증 ③직업동맹 맹원증(모든 직장인은 직업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됨) ④당원증(당원인 경우) ⑤직장근무증(신분증) ⑥여행허가증 ⑦위생통과증 ⑧양권(식량배급표로서 이 표가 있어야 식량을 배급타다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음) 등 술하게 많다. 북한 주민들은 아예 조그마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끈을 달아 목에 걸고 다닌다.

이렇게 복잡한 증명서를 지니고 다녀도 의심을 받는 사회가 북한이다. 주민등록증 하나면 어디를 가도 불편이 없는 우리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귀찮고 숨이 막히는 사회인가?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항상 긴장되고 누구에겐가 쫓기는 듯이 살고 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눈에는 북한 주민 모두가 녀을 잃고 있는 듯하고, 대부분 화가나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이다.

## 생각대로 말하고 발표할 수도 없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반혁명분자’나 ‘사상범’으로 몰리는 일이다.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권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색다르게 느끼는 것은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행할 때 옆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다. 쓸데 없는 소리를 하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

2중 3중의 감시조직 속에서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감시토록 강요되는 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말은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명한 길을 택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걸핏하면 ‘자기(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있다.

공산당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잘못을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하고, 여러 사람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 ‘혁

\*자기(자아)비판 : 군중집회에서 당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여 비판받거나 다른 사람의 고발에 따라 할 수 없이 자기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자기비판은 일종의 정신적 고문이며,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명성\*\*이 높아지고 ‘당성\*\*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하루 작업이 끝나면 ‘총화보고회\*\*’(농촌에서는 ‘밭머리 총화’등으로 불리고 있음)을 갖게 되고 거기서 작업반장이나 동료로부터 고발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할 것 등을 강요받게 된다.

한마디로 공산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 당성을 의심받거나 비판받을까 봐 말뚱하고, 하기 싫은 말, 마음에 없는 말은 남들 앞에 하지 않으면 안되게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각자가 뜻한 바나 의견을 글로 써서 마음대로 신문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펴낼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공산국가에 있어 신문, 방송, 잡지 등 모든 언론기관은 국가의 소유로서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 있기때문에 우리 사회처럼 자유롭게 언론을 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모든 신문이나 방송은 다만 공산당이 지시하는대로 움직일 따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론이나 출판은 혁명과 사상의 무기』로 철저

\*혁명성 : 공산주의 혁명투쟁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하는가를 따질 때 쓰는 말로, 이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반혁명분자’로 몰려 처단됨. 그러나 혁명성이 어느 정도냐의 측정은 오로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달려 있음.

\*당성 : 공산주의를 맹목적으로 믿고 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열성도를 말하는데, 당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당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면 당성이 높다고 함.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반대세력을 숙청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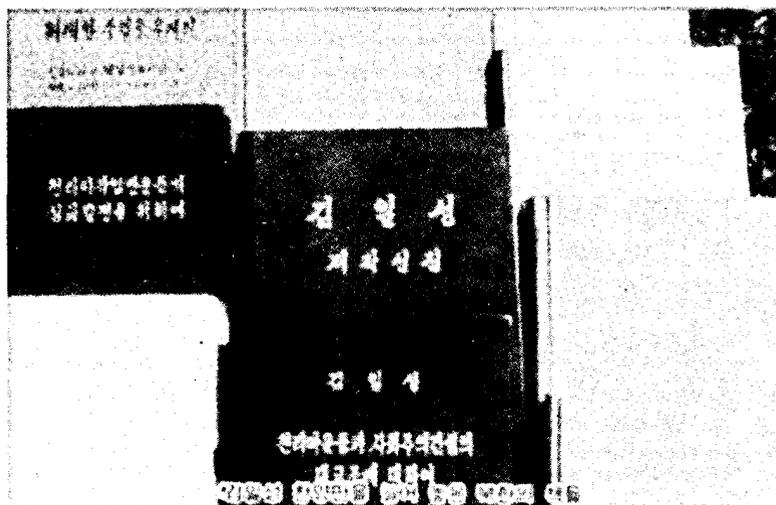
\*총화보고회 : 모든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루일이 끝나고 개인별 노력점수를 매기며, 그날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목표량 미달자를 비판하기 위하여 갖는 회의로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함. 협동농장에서는 밭머리에 둘러앉아 보고회를 갖는다 하여 ‘밭머리 총화’라고도 함.

히 이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도 모두가 혁명을 선동하고 공산당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꾸며지며 주민을 위한 오락이나 정서생활, 지식·정보 등에 관한 프로는 처음부터 뒷전에 미루어 진다.

이러한 것들은 공산혁명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독재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조그마한 책자 한권을 만들어 내려고 해도 필요한 모든 물자가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므로 찍을 종지와 맡길 인쇄소를 구할 수 없어서 뜻대로 출판을 할 수가 없다.

주민이 보고 듣는 방송프로도, 그리고 읽어야 할 책도 오로지 공산당에 의해서 선택되고 주어진다. 그렇게 해야만 혁명성이 강하고 당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서 바깥 소식은 아예 모두 막아버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선전하는 것만 듣고 읽도록 철저하게 강요하고 있다.

우리측 인사들은 가끔 외국기자로부터 우리가 지난 번에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섭섭하게도 북한동포들은 우리 방송을 들을 수가 없고, 북한의 보도기관들은 우리의 제의를 알려 주지도 않는다”고 대답하면 외국기자들은 대부분 이상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왜 방송을 들을 수 없는가?”라고, 우리측이 북한에서는 라디오 다이알을 자기들 방송만 들도록 고정시켜 놓고 있으며, 수시로 이것을 검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아니, 이 지구상에 그런 곳이 다 있느냐”며 깜짝 놀란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은 북한주민이 우리 방송을 듣게 되면,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해 온 선전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여 귀까지 막으려 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은 바깥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거의 모른다. 우리 서울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소식조차 오늘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천명 된 우리의 통일방안임. 주요 구성내용은 첫째, 통일의 기본여건 마련을 위해 「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맺어 민족화합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둘째, 쌍방 주민대표로 「민족통일 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자유민주방식의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임.

까지 깜깜하게 모르고 사는 것이다.

할 말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말을 강요 받는 사회,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고, 읽고 싶은 것을 읽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 것인가?

지금도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인 ‘수용소 군도’, ‘정신병동’과 북한의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는 수 많은 이른바 ‘반혁명분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게 한 말을 했고, 공산당이 시키는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죽음의 이유이다.

## 갖가지 노력경쟁운동 속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 매일같이 배정된 작업량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권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공산사회에서는 하루라도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당장 식량 배급권(북한에서는 이를 ‘양권’이라 부른다)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사회가 되기만 하면 모두가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 이룩된다고 약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상낙원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모든 노동자, 농민이 함께 일어나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모든 주민을 일터에 내몰고 노예처럼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공산국가이다.

공산국가에서는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불러 일으켜 나가기 위한 갖가지 심리적인 방책과 노력동원정책을 강행해 오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운동’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올려 주는 등 물질적인 보상 방법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지 못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기들의 근본적인 약점을 매꾸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궁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겨우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 ‘노력경쟁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운동은 예컨대,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어느날까지 이만큼의 물건을 만들도록 하라고, 목표량을 제시해 주고는 목표량을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는가 개인별로 경쟁을 시킨다. 이 중에서 1등을 하거나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크게 표창하거나 이른바 ‘노력영웅 칭호’\*를 붙여 준다. 또한 공장이나 기업소들에게는 생산실적을 경쟁케 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가 속해 있

\*노력영웅 칭호: 공산주의 국가에서 뛰어나게 일을 많이 한 노동자에게 주는 칭호로 기념 메달과 훈장을 줌. 이는 생산의욕을 잃은 주민들을 일하게 하기 위한 미끼로 쓰이고 있음.

는 공장이나 직장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인간의 경쟁심리와 집단 의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력을 다 쏟도록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한마디로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노동과 생산의 현장에서 경쟁을 끊임없이 벌려 나가도록 채찍질하고 부추겨 나감으로써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술책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갖가지 경쟁운동 때문에 공산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가를 북한 노동자가 겪는 하루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에 사는 일반 주민의 하루는 군대의 병영생활보다 더 힘들고 고달프다. 기계적인 규칙생활을 해야함은 물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과업들에 매일같이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무원이나 근로자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가정주부는 5시 30분 정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다.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할 때는 더 일찍 서둘러야 한다. 7시에 출근하면, 7시부터 7시 30분까지 ‘독보회’(정기강연회가 7~9시 사이에 있는 날에는 독보회는 생략된다)에 참가해야 한다.

8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

\*독보회: 어느 일터이든 그날 하루 과업을 시작하기 전 30분내지 1간동안 한데 모여 선전원이 읽어주는 신문내용과 해설을 들어야 함. 이 독보회에는 대개 김일성 찬양과 생산 의욕 고취 내용이 다루어짐.

간이다. 어린이를 가진 여자는 오전시간에 어린이에게 젓먹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30분으로 되어 있고, 한살 미만은 두번, 한살 이상은 한번만 허용된다. 노동자들은 작업시간동안 ‘천삽 뜨고 허리펴기운동’, ‘이고, 지고, 안고, 달리기운동’\*등에 매달려 한 때 도 설틈이 없고, ‘천리마운동’\* ‘2중·3중 천리마운동’(천리마의 속도가 그나마 느리다고 하여 만든 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 등 갖가지 집단별, 개인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일터에서는 ‘국 안먹기 운동’(국을 먹으면 화장실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다기대운동’(방직공장에서 남의 기계까지 봐 주자는 운동) ‘한뿔, 두뿔 더하기 운동’등에 남보다 앞 서지는 못할망정 감독관인 분조장의 눈에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생각해 낸 이와같은 노력경쟁운동은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오후 일과는 대강 7시에 끝난다. 그러나 바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다. 대부분 일과가 끝난 후에는 ‘일일총화보고’다, 뒤떨어진 작

\*이고, 지고, 안고, 달리기 운동: 농촌이나 건설현장에서 돌이나 흙을 나를 때, 또는 곡식을 나를 때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손으로 안고, 그러고도 모자라 뛰어서 움직이라는 운동임.

\*천리마운동: 중국의 고전 소설인 삼국지에서 적토마가 하루에 천리를 뛰듯이 속도를 내어 일하라는 것으로 1958년부터 시작됨. 생산성적이 우수한 작업반에는 천리마라는 칭호를 주어 노력경쟁을 시키고 있음.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소위 사상·문화·기술의 3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3대혁명이며, 이를 상징한 붉은기를 만들어 그것을 차지하려는 노력경쟁을 시키는 것이 이 운동임.

업진도를 채우기 위한 '추가노동'이라 하여 밤 11시 정도가 되어야 집에 갈 수 있다(다만,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7시 30분이면 대개 퇴근할 수 있다). 이리고 보니 집에 와 봐야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잠자리에 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살고서야 어디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밭머리에서 '독보회'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의 협동농장 노동자들.

이와같은 북한노동자의 비참한 처지를 중세기에 서양에서 있었던 노예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다.

첫째, 노예는 일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노예는 독립된 인격을 가질 수 없는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다. 오늘날 북한 노동자들은

『수령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고, 명령하는대로 행동』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 노예의 가치는 그 노예가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졌다. 오늘의 공산사회에서는 인간을 다만 노동력을 가진 하나의 생산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정신력이나 창의력의 가치는 거의 무시된다(이것은 이른바 ‘유물론’과 ‘노동가치설’이란 마르크스의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가치는 다만 그가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그가 늙고 병들어 쓸모가 없어지면 우선 식량배급부터 줄어들게 된다.

네제, 노예는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 역시 당에서 마음대로 직장을 옮기고, 심지어는 직업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 과연 이 얼마나 그럴듯한 대조인가?

공산사회의 일상생활이 이러한 노예생활이고 보니 공산세계의 주민들에게 있어 여가를 즐긴다던가 취미나 오락을 말 하는 것은 당초부터 남의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요즈음에 와서는 그런대로 소련이나 동부유럽 같은 선진 공산국가의 경우, 취미나 오락생활도 다소 즐길 수 있고 해외여행까지도 부분적으로는 허락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취미, 오락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바둑, 장기, 탁구 등을 언제나 자기 마음 내키는대로 즐길 수 있으며, 독서를 즐기든, 텔레비전을 보든, 그리고 등산을 하든 낚시를 가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각자의 생산목표나 책임량 완수에 매달려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판이니 자연이 여가를 즐길 겨를이 있을 리가 없다. 모든 과업 수행에 있어 초과달성을 할 경우에는, 그 충성심을 높이 추켜 세우고, 모두 이를 따라 일하라고 공치사를 해대지만,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때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 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만다. 몸이 아파 쉬는 날이 있어도 공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애당초 목표량 자체가 쉬는 날까지도 작업장에 나가야 겨우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책정되어 있으니 이들에게 휴일이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법으로는『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한다』고 이른바 ‘사회주의 노동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개인마다 년간, 분기간, 월간, 주간, 일간(하루)의 목표량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13~14시간 일해도 부족한 형편이다. 나머지 학습하는 2~3시간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수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니 더 피곤할 뿐이다.

그리고 남이 놀 때 일하는 사람을 충성심이 높고 당성과 혁명성이 강하다고 높이 추켜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되게 비판하고 있으니, 진절이 나는 성토와 자아비판을 받기 싫어서라도 일터에 나가야 한다. 이런 형편에 물론 관광여행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북한에서 여행이란 공무출장과 부모가 사망하는 등 가정에 긴급

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가는 여행,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휴가기간(대체로 1주일)동안에 이웃나들이를 하는 정도이다. 이와같은 목적의 여행에도 직장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사회안전부’(경찰서와 같은)에서 여행허가 증명서를 받아야 겨우 떠날 수 있다.

여행기간에는 비록 부모가 아들 집에 가더라도 거기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려면 양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식량을 배급 받아다가 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관내 안전부나 ‘안전원주재소’(우리의 경찰관 파출소 같은)에 가서 도착신고를 하고, 떠날 때도 역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역시 안전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 웬만큼 큰 마음먹지 않고서는 귀찮아서라도 쉽사리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다. 눈 막고, 귀 막아 놓은 뒤에 바로 여기가 지상천국이라고 해놓았으니, 공연히 해외에 잘못 내보냈다가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체험하고 올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해외여행은 허락될 수가 없다. 공적인 일로 할 수 없이 내보내는 경우라도 꼭 감시자를 따라 붙여야만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이다.

## 가정은 하나의 합숙소가 되었다

우리들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몹시 시달리어 몸과 마음이 피로하여도 퇴근하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 편안히 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생기가 되살아나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공산사회에 있어 주민들은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다.

공산주의자들은 가정을 다만 생산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기본단위로 보고 있을 뿐, 우리처럼 한 핏줄로 얽힌 한 가족이 오순도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키워나가는 보금자리로 생각치 않는다. 오히려 이같은 따뜻한 가정분위기와 전통적 가족제도는 공산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여 모조리 부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핏줄 중심으로 얽혀 있는 가족관계와 오랜 역사를 두고 내려 온 아버지 중심의 가족제도를 비생산적인 것이라 하여 파괴해 버리고, 공산사회에 알맞는 이른바 ‘새로운 붉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강력히 펴 왔다.

이 결과로 오늘의 공산사회에서는 가정이란 하루 일과를 마치면 들어가 식사하고, 잠자고 나오는 마치 노동자들의 임시 합숙소와 같이 썰렁하고 찬바람이 도는 장소가 되어 버렸으며, 부모형제나 부부 사이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도 도시의 하숙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마냥 서먹서먹한 관계로 변하고 말았다.

더우기 북한의 경우에는 여성들로 하여금 “집안에서 애를 키우고 가사를 돌보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해 주고, 남녀 평등권을 보장해 준다”는 아름다운 명목 아래 주부까지 일터에 내몰아 남자 뺨치

는 중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낳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탁아소에 맡겨 기르고, 아침 저녁밥은 밥공장에서 양권을 주고 타다 먹도록 하고 있어서, 비록 초가 삼간에서 살 망정 아침 저녁이면 온가족이 한테 모여 어머니가 지어 준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오순도순 살아 온 정다운 우리 가정의 모습은 완전히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인 씨족관념을 없애 버려야 한다고 하여 1947년에 호적법을 완전히 없애고 족보까지 불살라 버린 탓으로 주민들은 자기의 출생관계나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누구인가를 알아 볼래야 호적과 족보가 없고 보니 찾아 볼 길이 없다.

북한의 가정에서는 가장 처량한게 나이먹고 기운이 없어 일터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의 신세이다. 그들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일터에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쥐꼬리만한 임금이나 년말의 분배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부양가족’\* 으로 취급되어 식량 배급도 반으로 줄어 하루에 300그램 밖에 탈수 없다. 따라서 자연히 노인은 다른 가족들의 신세를 져야하는 터라 자식과 손자들로 부터 눈총 받기가 십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조차 혁

\*부양가족 : 북한에서 어린아이, 병자, 노동력을 잃은 늙은 사람 등 노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씀. 그리고 노동력이 있더라도 일단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부양가족 취급을 받아 식량배급을 줄임.

명 정신을 흐리게 하는 ‘부르조아’ 적\*생각이라 하여 환영해 오지 않았으니 이런 사회에서 커 나온 아이들이 부모에 효도하고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리가 없다. 결국 오늘의 공산사회는 점차 내 가정과 내 가족이 없고, 부모에 효도 조차 할 수가 없으며,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고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공산당 원인 보모의 짜증 속에 자라나는 그야말로 삭막하기 짝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종교조차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로지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이란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세계와 신(神)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나 종교의 존재는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 규탄하면서 하나의 투쟁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모든 종교를 미신이라고까지 규정하고 공산주의는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반대해야 마땅하다고 한다.

대부분 공산국가의 헌법에는 한결같이 ‘종교의 자유’와 함께 ‘반

\*부르조아: 근대사회에서 자본가계급에 속하는 사람. 중세의 유럽 도시에 있어서 성직자와 귀족에 대하여 제 3계급을 형성한 상공업을 주로 하는 중산계급의 시민을 말함. 성직자·귀족과 하층의 인민 사이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근대 사회의 자본가가 생겨 났음.

(反)종교 선전의 자유’(예, 북한헌법 54조)를 밝혀 놓고 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늘상 들어 알고 있으나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처음 듣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종교인을 배척하고 탄압하기 위한 고리를 만들어 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놓고는 종교를 반대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 놓음으로써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부추기어 종교를 탄압하고 반대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나 동부유럽 공산국가에는 오늘날에도 종교가 일부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그들 사회에서는 종교인이 공산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공산화되기 전의 소련이나 동부유럽 공산국가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미 기독교가 뿌리를 깊게 내린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무조건 탄압하면 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공산주의와 투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종교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를 잘만 이용만하면 선전하는데 더 유익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 가운데 일부를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 자기들 지시를 받게 하거나 종교단체 등의 중요자리에 열성 공산당원들을 침투시켜 종교계를 움직

이게 하고, 공산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를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는데, 종교인과 그 가족들은 좋은 직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에도 여러가지로 불리하게 하여 스스로 종교를 포기토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아예 종교를 철저히 없애 버렸다. 처음에는 공산당원을 교회에 위장 침투시켜 종교의식을 방해하는 등 소극적인 수법을 썼으나, 50년대 초반부터는 목사 등 성직자들을 살해하고 투옥하며, 교회 등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교회나 절간 등 종교재산은 모두 강제 몰수해 휴양소나 창고, 공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때문에 6.25 후 수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유대한으로 월남해 왔다.

북한에 남아 있던 종교인과 그 가족은 믿음을 지키다 처형되지 않았으면, 거의가 강제 노역장으로 쫓겨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탄압정책의 결과 60년대 초에 와서 북한 땅에는 마침내 종교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무신론자들의 왕국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의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나 부처님 대신 살아 있는 인간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 동상을 십자가나 부처처럼 모시고 김일성 ‘교시’\*가 성경과 불경이 되어 모든 주민에게

\*교시: 소위 김일성의 ‘말씀’(각종 보고·연설·현지지도시의 발언등)을 가리킴. 그들은 김일성이가 한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며, “김일성 교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구호처럼 이것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음.

믿음을 강요하는 ‘김일성주의’라는 하나의 사이비종교가 탄생케 된 것이다.

이러한 웃지 못할 실정을 빗대어 북한공산집단을 김일성을 교주로 하는 하나의 사교집단(邪教集團)이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

## 배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배울 수 없다

공산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택하며 배우고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라(공산당)에서 베풀어 주는 교육을 각자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의 목적을 모든 주민을 철저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데에 두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 주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미워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정치사상교육’이라고도 부른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 공산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인간형을 말하는 데,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의 필승의 신념, 집단주의의 정신무장, 노동에 앞장서는 태도, 당에 무조건 충성,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심과 호전성을 갖춘 인간을 조건으로 함.

소련의 심리학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쳐서 모이게 하고 나서 밥을 주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런 훈련을 몇 번이고 되풀이 했더니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을 학문적으로는 ‘조건반사’현상이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도 이렇게 조건반사적 교육을 되풀이 하면 거짓도 모두 진실로 생각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공산사회가 어린이들을 갓난 아이 때부터 탁아소에서 기르게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을 찢먹이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공산국가에서는 상급학교에 가고 싶다고 모두가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가정의 성분을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조건으로 친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당에서 일단 출신성분이 나쁘다고 점을 찍으면, 대체로 대학교에 가질 못하고 ‘고등중학교’(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것)를 마치면 공장, 기업소 등의 일꾼으로 배치되고 만다.

북한의 경우, 소위 ‘11년제 의무교육제도’라고 해서 명목상으로는 유치원 1년, 인민학교(국민학교) 4년, 고등중학 6년(중등반 4년, 고

\*파블로프: 1849년 출생, 1936년에 사망함. 소련의 페테르스부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생리학을 전공함. 1904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특히 「조건반사의 이론」으로 유명함. 그 후 그의 이론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세뇌교육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

등반 2년) 동안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각급 학교를 통털어 ‘사회주의 의무노동’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학생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즉 인민학교는 연간 4주, 고등중학은 연간 8주, 대학은 연간 12주의 의무노동이 강요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인민학교에서는 ‘꼬마 5개년 계획’이라 해서 과외 시간에 토끼와 염소, 닭 등을 키워 공산당에 바치도록 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새땅 찾기운동’(간척지 개간), 외화벌이 돌격대\*(어린이는 고철, 고무, 유리 등 줍기)등의 이름으로 공부는 제쳐 놓고 갖가지 노력동원에 더욱 열중해야 된다.

북한에서는 고급당원의 아이들만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의 가족은 일단 근로직장이나 군대에 배치되어 7~8년간 근무하고, 그 기간 중 조직생활에서 당성, 혁명성이 굳건하고 근무실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서 해당 직장의 당책임자가 추천해 주면, 비로소 전문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출신성분이 좋은)이며 대체로 고등중학을 나오면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대학을 요행히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외화벌이 돌격대: 북한은 수출할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기 위해 학생, 청년 등을 동원 ‘돌격대’라는 이름을 붙여 산삼·약초등을 캐고 독사, 뱀, 개구리까지 잡게 하는 소동을 피우고 있음. 심지어 어린이들을 동원, 못쓰는 고무나 고철까지 줍게하고 있는데, 이는 외채를 못갚고 있는 북한으로서 떨어진 신용을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임.

장래 설계와 소질, 희망에 따라 원하는 학과를 개인이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라가 정한 년도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그때 그때에 필요한 학과나 대학을 당에서 지정해 주는대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 자신의 뿌리와 나라의 역사도 모르며 산다

어느 나라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 맨 먼저 과거의 ‘자본주의적 낡은 사상’을 몰아내고 ‘반인민적 유산’을 말끔히 씻어내어야 한다는 구실하에 오랜동안 그 나라에 전해 내려 온 아름다운 문화전통과 고유한 정신적 유산들을 깡그리 부셔 없애고, 나라의 역사까지를 공산당의 비위에 맞도록 고쳐 쓰는 일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란 원래 어느 나라의 전통문화나 고유한 사상과도 걸맞지 않는 극히 이단적이고 반역사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과거의 ‘잡사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완전히 과거를 잊지 못한 나머지 공산당이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해도 그들의 말을 끝이 듣지 않게 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선조들의 업적이 아무리 빛나더라도 그것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시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역사적 유물들을 모두 거두어들여 어떤 것은 아예 파괴해 버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골라

보존하며 일반에게는 공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드신 공적을 크게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이순신장군 같은 분도 한낱 봉건왕조에 충성을 다 한 신하에 불과하다고 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적을 쳐 물리친 민족의 다시 없는 영웅으로 칭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어린이들은 이순신장군이 누구인가 이름조차 모른다.

또 오늘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이 걸어온 근대사를 완전히 거짓으로 꾸며 놓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일성과 그 집안 사람들의 행적을 거짓으로 날조하여 모두 애국투사들인 양 묘사하고, 옛날부터 혈통이 뛰어난 집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는 민족사를 훼손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민족을 욕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의 하나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혈연이나 조상을 찾는 일을 봉건시대의 낡은 유산이라 배격해 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째서 유독 김일성 가계의 족보만은 찬란하게 금칠하여 놓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살아 있는 김일성 자신의 동상까지도 금칠까지 하여 여기저기 세워 놓고, 주민에게 참배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제하던 거와 같다. 북한을 바로 『살아 움직이는 인

\*신사참배 : 일본황실의 조상이나 신대(神代)의 신 또는 국가에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서 모신 사당을 신사(神社)라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지난 시기에 강제적으로 이에 참배시켜 자기들의 조상을 섬기도록 한 바 있음.

간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지적한 어떤 독일 기자의 북한여행기는 오늘의 북한 공산사회의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 명절은 4월 15일의 김일성 생일(‘민족의 대명절’로 부름)과 9월 9일의 북한에 공산당정권이 들어선 날(‘9.9절’이라 부름)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쇠어오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것은 명절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명절이나 돌아가신 날에 조상께 제사드리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다. 쓸데 없는 제사를 지내려 하지 말고 부모가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 분이 살아있을 때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또 지난 행적 중에 비판할 점이 무엇이었던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일성 집안 사람의 제사는 무슨 ‘추도회’니 하여 거창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또 북한에서는 추석 명절에 조상의 묘에 성묘도 할 수 없다.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묘소 근방에 사는 사람들만 틈을 내서 산소에 찾아가 풀을 베어주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한다.

김일성 생일은 ‘민족의 대명절’이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 생일은 공휴일이 되어있다. 이에 비해 주민들은 자기 생일날은 미역국 한 그릇 찾아 먹을 수 없다. 더우기 ‘60 청춘, 90 환갑’이라고 우겨 환갑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노래도 무슨 ‘김일성 찬양가’나 ‘혁명가곡’이란 것들만을 부르도록 권장할 뿐, 우리의 아리랑 같은 민요나 판소리 등 민족 고유의 가락은 ‘잡사상’을 고취하는 것이라 하여 일체 금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조차 없는 사회가 바로 북한 공산주의 사회이다.

# 6

---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 공산주의를 정확히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자
- 우리 모두 앞장 서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일찌기 나라를 잃었던 고통과 설움을 맛보았으며, 6.25동란을 통하여 같은 동포끼리 피흘리며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경험하였다. 오늘도 우리는 민족분단이란 커다란 시련 속에서 가시지 않은 상처의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새롭게 되새기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 날에 있었던 상처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아니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또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공산주의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이단적인 북한 공산주의집단과 마주하면서 끊임없는 침략 위협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의 마당에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몫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온 인류가 공산주의라는 암적인 존재로 인해 생존과 평화를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은 단

순한 안전과 위태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키워 온 문명,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인류의 문명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룩된 것도 아니며, 그저 하늘이 가져다 준 선물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참된 용기를 대가로 하여 참으로 서서히 쌓여, 대를 이어 물려내려 온 귀중한 유산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그 제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동경하고 갈망해마지 않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기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130여년전,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이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는 하나의 ‘지상낙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 낙원의 실현을 위해, 인간의 귀중한 유산을 단숨에 덮어버리고 살아 숨쉬는 인간을 하나의 ‘로봇’로 바꾸어 놓기 위한 음모와 반역의 선동논리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의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 자신의 말처럼 하나의 ‘배회하는 유령’의 넋두리였다.

그러나 오늘의 공산세계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과 빈곤, 그리고 육된 삶을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이같은 망상과 선전, 선동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실감케 한다. 인간이 결코 완전한 기계가 될 수 없으며, 이 땅에 한꺼번에 지상낙원을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역사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완벽한 인간’의 추구와 ‘지상 낙원’의 건설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한 인간이나 지상의 낙원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항상 개선해 나가야 할 오늘의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다 발전하는 인간사회, 보다 부강한 국가, 건강한 현실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인간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긍지를 불러 일으켜 주는 생명의 활력소인 것이다.

공산주의가 인류문명에 대한 부정과 증오와 파괴의 투쟁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인류문명에 대한 신뢰와 사랑, 건설과 창조를 낳아주는 끊임줄 모르는 샘물이다. 공산주의가 억압, 빈곤, 공포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복지, 풍요와 평화의 얼굴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론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이 있을지언정, 결코 공산주의 사회와 같은 강요된 만장일치는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상의 숭배도, 대를 잇는 권력의 세습도, 공산귀족의 탄생도, 서로 피흘려 싸우는 계급투쟁도, 땅위의 지옥과 같은 '수용소 군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과연 어느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증오와 파괴의 길인가, 사랑과 번영의 길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 공산주의를 정확히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공산주의는 여러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후덕한 자선가의 탈을 쓰고 나타나며, 종교인들에게는 근엄한 성직자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또 환자에게는 인자한 의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며, 학생들에게는 정의를 외치고 사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스승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우리는 그간에 있었던 많은 소요사태나 불법시위 뒤에 이와같은 위장의 탈을 쓴 공산분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겉 모양이나 표정을 아무리 바꾸어도 그들의 기본생리만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내거는 빛 좋은 선전과 허울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결코 그들의 음모와 속임수에 말려 들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공산주의의 선전논리와 행동,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하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을 배반하고 국가를 팔며, 부모형제를 죽이려 드는 공산당들에게 협조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물컵에 색깔 없는 액체가 담겨 있다고 해서 다 물이 아니다. 물컵에는 당연히 물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물컵에 알코홀도 붓고, 독약도 붓고, 온갖

해로운 것을 번갈아 가며 담아 놓는다. 적을 모르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

둘째, 그들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힘을 길러야 하겠다. 힘있는 자만이 결국 살아 남을 수 있다. 힘이 있어야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걸어 오거나 속이지를 못한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력만 강하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비록 강하더라도 정신적인 힘이 약해서 넘어진 나라들의 예를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가 말끔히 사라지고 근로자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각자 흘린 땀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사회가 이룩되어 구석 구석에 어두운 곳과 빈곤의 참담함이 깨끗히 없어져야만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디고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세균과 같은 생리를 가졌다. 우리는 결코 우리끼리 싸우고 힘뜯는 일을 일삼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주게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고 자유와 정의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 타고 난 본성을 무시하고 인류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길을 거꾸로 걷고 있는 공산주의의 몇몇 사람들이 정권을 빼앗고 독

재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이용되는 공산주의가 모든 양심있는 인간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당연한 일이다. 그들에게 속아 공산주의 국가로 된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도 뒤늦게나마 깨닫고 오늘날 세계의 도처에서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 공산주의자들의 구름 잡는 듯한 주장과 헛된 꿈은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 북한동포들이 오늘도 공산주의자들의 압제하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이들에게 자유와 민주와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고, 독재자의 억압으로부터 하루빨리 구출해 내야겠다는 적극적인 해방자의 신념을 굳건히 다짐해야 한다.

## 우리 모두 앞장서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일제 36년의 압박과 설움의 세월보다 오히려 더 긴 분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분단민족’ 또는 ‘분단국 국민’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분단된 나라의 설움이 바다보다 깊으며, 평화없는 세상이 지옥보다 무섭고, 자유 잃은 동포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았으며, 또 뼈저리게 느껴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물자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쓸데 없이 낭비되어 왔는지도 잘 알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바로 이와 같은 민족적 비운과 불행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된다. 또한 통일은 김일성 1인의 독재체제하에서 지난 40여년간 온갖 설움을 받아 온 북녘의 동포들을 구출한다는 숭고한 의미도 갖는다. 따라서 두동강 난 겨레와 국토를 하나로 이어, 번영되고 복된 통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일은 우리에게 지어진 사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조국과 겨레의 복된 장래를 약속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극동 아시아에 지퍼져 있는 전쟁의 꺼지지 않은 불씨를 없앨 수 있음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세계사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길이 된다. 그것은 곧 자유, 평화, 번영을 향한 세계사의 흐름에 우리 겨레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족적 비운과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는 오늘과 같은 분단상태가 벗어지게 된 것이 비록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겨레의 앞날을 밝게 개척해 나가는 것은 바로 오늘에 사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분단으로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도 우리 자신이며, 또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적 영광과 무궁한 민족의 발전을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한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평화통일의 큰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하나

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빛나는 기록이 될 것이다. 결국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며 우리들의 일이다. 우리는 결코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을 공산주의자들의 붉은 손에 맡길 수 없다. 우리는 통일 의지와 노력이 약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할 때, 자칫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붉은 통일의 가능성을 안겨준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통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역을 한 일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나아가 세계 모든 자유민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비극이 이 세대를 넘어 또 한 세대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남의 집 불보듯 지켜 볼 수는 없다. 우리 세대의 비극을 우리 시대가 가기 전에 말끔히 청산하고 「세계 속의 통일한국」으로서 자랑스럽게 전진하는 새 날을 설계하는 것은 곧 우리 세대에 맡겨진 사명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한민족의 통일위업을 성취하여 「위대한 세대」로서 우리의 민족사에, 아니 세계사에 찬란한 등불로 길이 간직될 것을 원하지, 비겁하고 용기 없어 자유민의 기대를 저버린 세대로서 남아 영원히 치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조국은 어느 정권이나 일부 계층의 깨우침이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성실과 근면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그리고 조국통일이란 역사적 사명을 힘겨운 짐이 아니라, 가슴 뿌듯한 희망찬 과제로 생각하며, 통일의 그 날을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 나가야 한다.



# 무엇이 공산주의인가?

---

1982년 9월 10일 초판 발행

1984년 12월 20일 개정판 발행

발행처 국 토 통 일 원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

전화 754-8138

인쇄처 고려서적(주)

---

